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실태와 기념사업을 위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일시: 2020.6.11.(목) 장소: 진안군 산약초전시관 2층 홍삼실

주최:  진안군 주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WONKWANG UNIVERSITY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실태와 기념사업을 위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일시: 2020.6.11.(목) 장소: 진안군 산약초전시관 2층 홍삼실

주최:  진안군 주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WONKWANG UNIVERSITY



일정 안내

순서/시간		사회: 엄 기 일(진안군 학예연구사)	
등록			
13:40 ~ 14:00	등록 및 안내		
참석자 소개			
14:00 ~ 14:05	엄 기 일 (진안군 학예연구사)		
개회인사			
14:05 ~ 14:10	박 홍 영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1부		사회: 원 도 연(원광대 교수)	
기조강연			
14:10 ~ 14:40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장군 후손의 삶	이 용 엽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2부		사회: 원 도 연(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1			
14:40 ~ 15:05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	신 영 우 (충북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2			
15:05 ~ 15:30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신 순 철 (원광대 명예교수)	
3부		사회: 신 순 철(원광대 명예교수)	
15:30 ~ 15:40	준비 및 휴식(10분)		
주제발표 3			
15:40 ~ 16:05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원 도 연 (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4			
16:05 ~ 16:30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과 기념시설 조성방향	이 인 숙 (디자인 뭉 실장)	
패널토론			
16:30 ~ 17:00	문병학(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최규영(진안향토사연구소 소장) 김완식(진안군 문화체육과 문화재팀장) 박정원(도시계획사무소 UB 대표)		

목 차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실태와 기념사업을 위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제1부

[기조강연]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장군 후손의 삶 07

이용엽 향토사학자·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제2부

[주제발표1]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 35

신영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2]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53

신순철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제3부

[주제발표3]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67

원도연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주제발표4]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과 기념시설 조성방향 87

이인숙 디자인 몸 실장

기조강연.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장군 후손의 삶

이용엽 향토사학자·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장군 후손의 삶

이 용 업 향토사학자·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목 차 -

1. 서론
2. 진안지역 동학농민 혁명의 서막과 주요인물
 - 1) 전병화
 - 2) 전익호
 - 3) 전동필
 - 4) 이사명
3. 진안 백운면 오정리의 의미
4. 진안의 농민혁명군과 관군의 전투상황
 - 1) 용담전투(龍潭戰鬪)
 - 2) 상조림장(上照林場) 전투
 - 3) 진안(鎭安) 전투
 - 4) 고산 산천리 전투와 고산 전투
5. 전봉준의 딸 전옥례 여사
 - 1) 전옥례 여사의 삶
 - 2) “소고당 규방가사집”의 동학이야기
6. 결론
- * 부록

1. 서론

진안지역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소외지역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동학 하면 먼저 정읍이나, 공주 등을 주목하고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역으로서 그 곳이 역사의 조명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진안은 전북의 동부 산악권으로 진안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100년 전만해도 전주에서 진안에 가려면 하루가 걸려야 하는 산간오지였기에 유사 이래 중앙의 정변이 있을 때마다 뜻있는 인사들이 이곳에 찾아와 은둔생활을 하였으니 전란이 있을 때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을 때도 진안은 소외된 지역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동안 세인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고 연구해본 적도 없었으나 최근에 전봉준의 “백운면 훈장설”과 “용담읍 함락상황”, “상조림장 전투” 등 단편적인 사실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되면서 농민혁명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동학농

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로 활약한 전봉준 장군은 일찍부터 진안을 자주 찾았던 사실이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졌고 농민혁명의 주요 인물들이 진안 출신인 점으로 보아 진안은 농민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임이 분명하다.

우선 전봉준 장군과 진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진안지역의 사회적 여건으로 보아 조선 초부터 천안전씨 세거지로 여러 곳에 천안전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100년 전만해도 혈연관계란 서로 어려운 일에도 도와주는 관행이 농후하였으니 젊은 시절부터 비상한 뜻을 품은 전봉준이 각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천안전씨 집안의 인물들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진안 지역 동학에 관련된 간부급 인물 중 천안전씨인 전병화(全炳化), 전화삼(全和삼), 전익호(全益鎬), 전동필(全東弼), 전세일(全世鎰) 등이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백운면 오정리에는 전화삼, 이사명, 전익호, 전동필 등 전봉준의 직계 참모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전봉준 장군이 훈장으로 가장하고 이들과 농민혁명을 계획하고 조직에 착수한 사실이 후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전동필은 고부 출신으로 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었으니 진안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이곳은 거사의 모의 장소로 최적지라 볼 수 있다. 백운면 오정리는 임실 성수, 진안 성수와 인접으로 임실과 진안이 40리 거리에 있어 동부 산악권인 남원, 임실, 무주, 장수 등과 연결하는 거리적 요충지다.

이곳에서 훈장을 하였다는 설은 외부의 눈을 피하고 거사를 준비하는 방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강욱(李康旭)¹⁾의 증언에 의하면 오정리 인근 구름뜸(서당골)에 옛날부터 서당이 있었는데 자기도 어릴 때 이곳 서당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서당 훈장설이 전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전봉준의 은밀한 활동에 대한 일화를 보면 그가 나들이 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갈 적에는 주로 밤을 이용하였고 땃돌 위로 내놓은 산가지²⁾ 수 대로만 밥을 짓게 했다고 한다. 일행의 수를 숨기기 위함이었다. 그밖에도 전봉준은 ‘김봉집, 김봉군, 전명숙’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곤 했는데, 이 때문에 묻혀진 행적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전봉준이 태인 자급실에서 고부 땅으로 내려온 것은 바로 이런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³⁾ 이밖에도 김개남, 송희옥과 함께 구미성인출(龜尾聖人出)⁴⁾이라는 참위설에 따라 전주 구미(현재 완구 봉동읍)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 한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무렵 자주 진안 오정리에 거점을 두고 농민혁명의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장소로 추정된다. 물론 혁명이 성공하였다면 동학농민혁명의 배후 거사 계획과 참여 인물도 밝혀졌겠지만 전봉준이 체포되어 실패로 끝나 사형을 받게 되니 전후 사상은 더욱 알기 어렵다. 전봉준 최측근에서 혁명을 도와준 진안출신 직계 참모들 또한 전혀 그 행적을 알 수가 없다. 후환을 염려한 전봉준은 공초 중에도 일절 주위 신변에 대해 밝히지 않아 직접 전투에 참여한 지휘관들만이 역사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사전에 충분한 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1890년대에 동학에 입문하였다는 전봉준이 어찌 동학농민군의 대장으로 추대되어 것처럼 조직적인 군대 편성으로 관군과 대항하여 승리로 이끌어 전주화약(和約)을 체결하고 국정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사항으로 남는다.

농민혁명을 주도한 전봉준도 사전에 농민혁명의 계획을 구상하고 인재를 모아 논의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정읍 고부와 더불어 진안 백운면 오정리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진안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용담읍이 3일 간의 격전 끝에 동학농민군에 함락되어 ‘공해 44칸’과 ‘민가 47호’가 불에 타고 인명피해가 17명이나 되었다하며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벌인 상조림 전투는 관군의 보고에는 30명을 포살하고 수 백 명이 사살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진안읍 전투에서도 동학농민군 수 십 명이 일본군에 사살되었다 하니 그 어느 지역보다 동학농민혁명의 격전지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상조림장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진안전투’, ‘고산산천전투’에 이어 고산전투를 끝으로 최후의 항전지 대둔산 전투로 이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차근차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다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데 일익을 하리라고 본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인물로 전봉준의 측근에서 보좌한 접주 문계팔(文啓八), 김영동(金永東), 이종태(李鍾泰), 용담집장 김기조(金己祚)와 용담의 동학농민군 주모자급으로 상조림장 전투에서 희생된 서도필(徐道弼), 박만호(朴萬鎬), 이만실(李萬實), 조윤삼(趙允三), 박치팔(朴治八), 김윤일(金允一) 그리고 고산전투에서 희생된 동학접사 김치서(金致西), 창성동(倉聖道), 임성원(林聖元), 김중이(金仲伊) 등의 간부급과 기타 수많은 농민군들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사에 이어 계속 조사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이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운장산 기슭 연기촌 산막에 숨어 살았다는 김승화, 유승열 두 사람은 흥덕에서 피신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았다.

2. 진안지역 동학농민 혁명의 서막과 주요인물

1) 전병화(全炳化: 1842~?)

전봉준을 백운면 오정리에 훈장으로 초빙한 인물이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오정리(행정구역은 남계리)에는 전봉준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희망과 야망이 충만했던 젊은 전봉준이 이곳으로 초빙되어 서당 훈장을 했다는 내용도 그 중 하나이다.

전봉준이 큰 인물임을 알아보았던 전병화(全炳化)는 어떻게든 함께 뜻을 나누고자 했고 자기 집 한 칸을 내어 서당을 차리고 전봉준을 훈장 선생님으로 초빙했다. 학문이 출중하고 세태에 민감했던 전봉준은 진안의 천안전씨 문중에서 인재로 인정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점차로 전봉준의 사회 변혁의지에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고 진안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무능한 조선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청일 양국이 우리 강토에 들어서게 되었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무력 앞에 무참하게 밟히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봉준과 관계가 있었던 전병화가 무사할 리가 없었다. 나아가 진안의 천안전씨 문중에서 전봉준과 뜻을 모아 행동했던 사람들도 화를 피할 수 없었다.

가족이 살해되고 마을은 불에 타고 너나없이 산으로 도망하고 성명을 바꾸어 가며 숨어 살게 되는 시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이미 진안지역에는 구전되어 오고 있지만 학계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아 연구의 부진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진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던 분이 오정리에 거주했던 고전태성⁵⁾ 씨였다.

1) 당시 79세. 백운면 덕현리에서 출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주.
2) 산가지: 주역으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50개의 가는 대나무가지.
3) 우윤, 『전봉준-1894, 갑오 농민 전쟁 최고 지도자』, 하늘아래, 2003, p.54~55.
4) 구미에서 성인이 나온다는 의미.

1990년 진안향교에서는 일요학교를 개설해 향토사에 대한 내용을 강의 하였는데 당시 주임교사였던 황안웅 교수(원광대 동양대학원 교수, 전 전북문화재 전문위원)가 전태성씨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전태성 씨의 증언에 의하면 오정리에는 옛날 전병화란 일가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의 젊은 시절 행랑채에 서당을 열고 전봉준을 훈장으로 모셨다고 전해들었다 한다. 그리고 동학혁명이 평정된 뒤 그 관계로 인해 전병화와 그 가족은 화를 입었고 오정 마을은 불바다가 되어 사흘 밤낮동안 연기가 올랐다고 전해들었다고 한다. 1895년 전라도를 남상(濫觴)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된 농민봉기의 비참한 최후를 오정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태성 씨 집은 통나무와 짚으로 열기설기 지은 움집이었던 때문인지 불에 타지 않고 그 때까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당시에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일본헌병들이 시퍼런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라 말도 못하고 1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한다.

최근 오정리에 방문해 조사해 보려 했으나 전태성 씨도 사망하였고 그때의 사항을 알만한 분은 한사람도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가옥의 상량문을 확인하면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여건이 따르지 못했다.

한편 백운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오정리 전병화의 제적부를 열람해 보려 했으나 6·25 전쟁 때 백운면 호적부가 불에 타서 남아있는 호적은 이후 새로 제작한 것이어서 전병화의 호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다만 ‘천안전씨 족보’ 중 진보공파(己未譜: 진안지역파보) 족보에서 전병화를 찾을 수 있었다. 두 평군파 중 진보공 두(斗)의 후손으로 만태(萬泰: 1805)의 둘째 아들이며 1842년에 태어나 字는 찬숙(贊淑)이며 배(配)는 단양우씨다. 묘소나 사망일자가 없고 그의 아들은 기현(基顯: 1875)이며 손자는 종하(鍾廈), 종주(鍾周), 종로(鍾魯), 종명(鍾明)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기홍(全基洪, 海山)의 백부(伯父)가 되며 해산이 후사가 없어 기현의 큰 아들인 종하가 양자로 이어졌으며 1919년 족보, 1958년 족보에도 큰 아들인 종하가 양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산창의록』 등에도 종하가 해산의 양자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족보에는 종주가 입양으로 되어있어 제반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해산의 서적과 19세에 그렸다는 ‘조선팔도병풍’⁵⁾을 종하가 소장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현재 순천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종하(全鍾廈, 號: 憂堂)는 학자였으나 아들 없이 딸이 1명 있었다. 장수 변암에서 백운면 덕현리 래동리로 이사와 살면서 1958년도에 서당 훈장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헌법 등 신학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쳤고, 학생은 인근 마을에서 찾아와 30여명이었다 한다. 그 문하가 우당의 필사본 조선유학사를 보관하고 있다, 유림으로 진안향교에서 주관하는 제관도 지냈다. 1962년에 발행한 『전북지』 智 권의 九 영제(詠題)편에 우당자음(憂堂自吟)시가 실려 있다.

早年有意渡關河, 일찍이 뜻이 있어 관하로 건너가

5) 전태성(1923~1991). 천안전씨 진안향교 전교, 유도회장 역임.

6) 조선8도 병풍은 그 웅장함과 섬세한 솜씨 해박한 지리 지식을 통해 전해산이 작화한 것으로 열열한 애국관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지도는 의병 작전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여러 사람들이 탐을 내었는데 노산 이은상 선생이 보고는 병풍을 빌려다 자기 별장에 쳐 놓기도 하였으며 값을 주고 매매도 하려 하였으나 종하는 끝까지 넘기지 않고 귀중히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

楚水泰山冒雨過, 낮선 산천에서 비를 무릅쓰고 돌아 다녔다.
胡馬嘶風含血淚, 호마가 우는 바람에 피눈물을 머금었는데
倭酋歸日放豪歌, 왜놈의 추장은 일본으로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還鄉戀國身難處, 고향에 돌아와 나라를 연민하나 몸 둘 곳이 어렵고
玩世思家事奈何, 세상을 보면서 집안을 생각하니 일을 어찌할거나
不變一心應萬變, 변하지 않던 마음도 응당히 만 번도 변하는 것을
耳聞目睹我憂多,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 나의 걱정이 많구나

우당 전종하 우음

말년에 전씨 집안에서 운교리 지동(池洞: 못골)에 집을 지어주면서 장사랑공 이신(以信)의 묘소를 관리해 달라하여, 그 관리사택에서 살다 상배(喪配: 부인택호는 안양택)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전주 딸에게 가서 세상을 떠났다 한다.

종하 씨는 글을 잘하여 『해산창의록』을 저술하였고 장사랑공의 비문도 찬, 서하였으며 전씨 집안의 많은 비문을 찬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87년 ‘천안전씨 족보’에는 다시 해산(海山)의 양자로 기영(基英: 해산의 동생)의 아들인 종거(鍾巨)가 입양되어 있다.

이처럼 해산이 후사가 없어 계속 양자가 바뀌지는 과정에서 종전의 해산 양자로 활동하던 종하와 새로 입양된 종거 간에 양자 관계의 소송도 제기 되었으나 종하 씨가 패소하여 현재는 종거의 후손이 해산의 묘소나 제반을 관리 하고 있다 한다.

백운면 오정리에서 동학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는 전병화는 은거 생활을 하다보니 그의 행적을 증언할 길이 없으나 여러 기록에는 전화삼(全和三)은 전병화와 동일인으로 오정리⁷⁾ 출신이며 본관은 천안인으로 진안이 거소로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총수 전봉준 장군 휘하 군장으로서 진안에서 전익호(全益鎬)와 이사명(李士明), 고부의 전동필(全東弼) 등과 더불어 의거에 자진 참여하여 19세기 후반 제도와 권력에 항거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따라서 항일 대열에 기수로 활동하다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전병화의 법명이 “화삼(和三)”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천안전씨 『명현록』 참고). 또한 족보에도 전화삼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옛날에는 이름도 字나 諱, 號가 있고 또한 호적 이름과 족보에는 행렬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 착각하기 쉽고 동학에 입교했을 경우 교단에서 주는 이름이 따로 있어 혼동이 많다. 예를 들면 김개남이나 이사명도 동학교단에서 내린 이름이라 하니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전병화에게 동학교단에서 내린 이름이 화삼(和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전익호(全益鎬: 1846-1897)

그의 字는 내삼(乃三)이요, 본관은 천안전씨로 현종 11년 을사(1845) 2월 25일 백운면 오정리에서 통정대부를 제수 받은 아버지 전기풍(全基豐)과 숙부인(淑夫人) 여산송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전익호는 동학농민혁명의 총수 전봉준 장군 휘하 군장(직속부관)으로써 진안에서 전화삼(全和三)과 고부의 전동필(全東弼) 등과 더불어 의거에 자진 동참하고 구한말의 권력과 세도의 부정부패를 혁파하는데 앞장서고 항일, 항청의 기수로 활약하다 전세가 불리하여 총수 전봉준 장군 이하 장령

7) 전병화의 족보 진보공파 기미보 1919에는 그의 생몰연대나 묘소도 불명하나 1968년 족보에는 기일만 12월 21일로 기록되어 있어 아직도 행방불명이 분명하다.

급(선봉장) 등이 차례로 처형당하게 되니 도피하여 은거 중이었다.

고종 32년(을미:1895) 5월 7일 운장산(雲長山)에서 일본군에 발각되어 항거하다가 현장에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시신을 7토막으로 절단하여 비참하게 순절하니 부인 흥덕장씨와 그의 어린 자식 태반(泰般), 태옥(泰郁) 등과 근친들이 시신을 거두어 은천리에 암매장하고 후환이 두려워 부귀면 봉암리에서 거석리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⁸⁾

그러나 익호의 증손인 전갑철(1940~ , 전 전북도청 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증조부는 백운면 오정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학문을 익혀 주위에서 전학자(全學者)로 불렸으며 동학농민혁명 거사 이전부터 백운면 오정리에서 전봉준과 자주 만나 그를 돕는 직속 부관으로 거사에 참여 하였으나 전봉준이 체포된 후 부귀면 오룡리로 피난을 하였었다. 그러나 1897년 일본군에 발각되어 붙들려 7토막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마을 놓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야밤에 시신을 수습하여 미실(부귀면 소태정) 마을 부근 야산에 묻었다고 하나 그 당시 경계가 너무 삼엄하여 봉분을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 현재까지 모를 찾지 못하고 실전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 맥에서는 증조부께서 가지고 있던 칼 한 자루가 전해오고 있었는데 태호(宅號)를 오정리택으로 불린 증조모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그 칼을 싹뒤주에 모로 뉘면 딱 맞아 싹을 채워 오래토록 숨겨 왔으나 1950년대 전주로 이사를 하면서 분실되었다고 한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무기가 대부분 죽창이었으나 검을 패용하고 다녔다며 그 신분이 지휘관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지 못하고 100년 동안 숨겨오며 살아왔다고 한다.

3) 전동필(全東弼)

그의 본관은 천안전씨로 거소는 전북 고부 출신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총수 전봉준 장군 휘하 군장으로 진안의 전익호, 전화삼 등과 더불어 의거에 자진 참여하고 19세기 말의 세도와 권력을 혁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따라서 항일 대열의 기수로 활약하다가 처형을 당했다 한다.⁹⁾

4) 이사명(李士明)

이사명의 본관은 전주이씨로 거소(居所)는 진안군 백운면 오정리이다. 그의 字는 성필(聖弼)이요, 보명(譜名)은 기풍(起豐)이며 사명(士明)은 동학교단에 내린 이름이다.

그는 전주이씨 효령대군 28세손으로 충정공파로 선대는 남원 둔덕(현 오수면)에서 살다가 남원 아영면(당시 운봉) 두락리에서 자리를 잡았으나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진안군 백운면 오정리로 이사와서 살았으며 오정리에서 태어났다고 그의 손자인 이현도 씨는 증언하고 있다.

현재에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에는 그들 집안이 몇 세대 살고 있는데 이현도 씨의 숙부뻘 되는 이강욱¹⁰⁾ 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이 임실 둔덕에서 언제 입향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자기의 증조부 묘가 성수면 구신리에 있고 고조의 묘가 성수면 외궁리에 있으니 자기의 고조부 때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사명의 집안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안으로 입향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8) 전건록, 육오종광 외교비화(1893) p.370, 전봉준 장군집 pp.145~146 이상은 전씨명현록(全氏名賢錄)에서 참고.

9) <전봉준 장군집> P145-146, 이상은 <전씨 명현록> 을 참고.

10) 이강욱(李康旭). 조사당시 79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주.

이사명의 손자인 이현도¹¹⁾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이사명은 키가 크고 인물이 흰하여 문(文)에 능통하여 수차례 과거에 응시하려 한양에 올라갔다고 한다. 갈 때는 잔치를 베풀고 말을 타고 떠났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당시 과거제도의 문란을 보고 느낀바가 많아 사회개혁의지가 5년 연상의 전봉준을 오정리에서 자주 만나 서로 의기투합하여 동학에 입교하게 된 동기로 본다.

그후 동학농민혁명에 동참하여 남원지역 접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김개남의 남원입성을 도와주었으며 10월 김개남의 복상 이후에는 남원성에 남아 박봉양(朴鳳陽) 민병과 싸웠다고 하며 진안의 접주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기세등등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개입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봉준, 김개남 등 영수급들이 차례로 처형되면서 이사명도 오수에서 잡혀 혀를 깨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때 그의 부인 전주최씨는 어린 아들 강엽(康燁, 당시 4살)과 딸들을 데리고 인근 백운면 분토동에 피신하여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아들이 성장하게 되자 마령으로 이사를 하여 살게 되었다.

마령으로 이사를 오게 된 동기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사명은 13살의 큰 딸이 있었는데 마령 평지 마을의 오정열¹²⁾과 정혼하여 친정인 오정리에 살고 있었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서둘러 혼인을 시켰으며 오정열은 한약방을 하면서 살림도 넉넉해지자 분토동에서 고생하는 장모와 가솔들을 마령으로 모시고 와서 살게 하였으며 손자인 이현도 씨는 마령보통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사명의 묘소는 마령면 계서리 서비산에 있는데 필자는 이현도 씨와 같이 묘소를 찾아보니 오랫동안 찾지 않아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어 묘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라 관리가 요망된다.

이현도 씨는 당시 10여 년 전에 증언록¹³⁾에 밝힌 조부님 이사명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향을 멀리하고 악몽 같은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던 터라 조부님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왔기에 기풍(起豐)과 사명(士明)이 형제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명이 기풍이며 동학교단에서 받은 교명이 사명이란 사실을 최근에야 체적부와 이사문(士文)의 후손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근자에 사명의 동생 사문¹⁴⁾의 후손이 나타나 그 내력을 알아보니 그도 동학에 가담하여 순창에서 접주로 많은 활동을 하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고창으로 피신하여 변성명하고 살았고, 이제야 고향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릴 때 들던 대로 조부님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이현도 씨의 누이 이금순(李金順, 1919~ , 당시 85세) 씨가 현재 함양에 생존해 있는데 동생(이현도)보다 더욱 뚜렷이 이사명 접주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이금순 씨의 증언: 할머니(전주최씨: 이사명의 부인)께서는 저를 업어서 길렀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너희 할아버지 새명장군(이사명 장군)은 용모가 웅장하고 글을 잘 하였으며 언변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다. 형시

11) 당시 80세. 원불교총부 원로법사.

12) 오정열(吳正烈: 1880~?). 1907년 사립진안문명학교를 진안 향교에 설립하였고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마령에서 한약방을 개업하여 사업이 잘 되자 전주로 이사하여 “초대 전북한약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3)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5.

14) 사명이 1862년생인데 동생의 이름이 기갑(起甲)인 것으로 보아 다음 갑자년인 1864년생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외출할 때는 말을 타고 다니셨다.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몇 번 가셨지만 번번이 실패해 갈 때는 잔치를 하고 가지만 올 때는 밤에 조용히 숨어들어오셨다. 전봉준 장군과는 일찍부터 자주 만나 최측근에서 활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분 사문(최근에 확인)께서는 순창에서 접주로 활동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 진안 백운면 오정리의 의미

이 자그마한 마을에는 1890년대에 동학의 군장급 접주들이 기록에 나타난 분들만해도 다섯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전병화(全炳化)¹⁵⁾를 비롯 전봉준 장군의 직속 부관으로 알려진 전익호(全益鎬, 1845~1897)와 고부출신으로 전봉준 장군의 휘하 군장으로 의거에 참여한 전동필(全東弼, ?~?) 동학의 남원 접주로 많은 활약을 한 이사명(일명 이기풍: 1860~1896), 이사문(이기갑: 이사명의 동생), 문계팔(文啓八, ?~?)등이 주인공들이다.

여기에 전봉준 장군(1855~1895)이 훈장으로 행세하며 이곳에 자주 들러 이들과 사회개혁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며 모의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전병화, 전익호, 이사명 등은 이 지역에서는 학문이 높고 가정환경도 좋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명은 오수의 효령대군 후손으로 여러 차례 과거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하니 아마도 모두가 이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이와 뜻이 서로 통했던 전봉준이 찾아와 그들과 쉽게 접근하였으리라 본다.

기록에 나타나는 전봉준의 행적은 각처를 떠돌아다녔는데 진안지역은 천안전씨들의 집성촌이 많고 특히 백운면은 전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일찍부터 큰 뜻을 품은 전봉준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십분 활용하여 자주 들러 많은 인물들을 만나 사귀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안에서 동학에 가담한 인물 중 전씨가 많이 참여하였다.

특히 오정리는 지리적 여건이 임실이 40리, 진안 40리로써 임실 성수와 진안 성수, 진안 백운의 경계지역이라 지리적으로 큰 뜻을 품고 계획하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더구나 고부에 사는 전동필이 여기에 가담하였으니 아마도 이분은 외부와 연락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접주급 문계팔(文啓八), 김영동(金永東), 이종태(李鍾泰) 등과도 자주 만나 농민혁명의 계획을 논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명의 손자인 이현도(원불교법사)의 숙부뻘 되는 이강욱(李康旭)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가 백운면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오정리 바로 옆 동네인 “구름뜸(서당골)”에는 오래된 서당이 있어 자기도 어릴 때 이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다하니 전봉준이 서당에서 이 사람들과 자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원평집회 등 여러 집회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학문이 깊은 문무를 겸비한 참모들이 휘하에 있었기에 동학에 늦게 입문한 전봉준이 동학의 오랜 간부인 손화중, 최경선, 김개남 등을 제치고 동학농민군 총대장으로 추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남 해남에서 의병장으로 많은 의병활동을 하면서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31세를 일기로 순국한 황준성(黃俊聖, 1878~1909)의 재판 기록에 출생지가 “전라북도 진안군 남면 오정리”로 되어 있어 이 또한 그들의 영향으로 의병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황준성은 대한제국군 참령(영관급 장교)으로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해산이 강행되자 이를 반대하여 항쟁하다 체포되어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선고 받고 전남 완도 죽정리에 유배되었다. 그러

15) 전병화(全炳化, 1842~?). 전해산 의병장의 백부 전화삼(全和三)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나 유배지에서도 향교 명륜당에서 훈장 생활로 소일하면서도 도처의 의병봉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결국 어린 제자인 박영희¹⁶⁾와 탈출하여 강성택 의병진에 합류 의병장에 추대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대홍사 심적암 전투에서 패한 후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교수형을 받았다.

그의 활동 기록은 『해남군지』, 『완도군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그의 제자인 박영희의 추천으로 “건국훈장국민장”이 수여되었다. 박영희와는 짧은 기간의 사제지간이었으나 황준성의 인품에 감화되어 평생 동안 선생을 잊지 못하고 행적을 정리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99세에 입적하였다. 후손이 없어 양자인 박정부 씨가 두 분의 훈장과 제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황준성의 불제자인 경현스님(대홍사 백화암 주지)은 음력 9월 9일에 두 분의 제사를 합동으로 모시고 있으며 유적보존회를 추진하고 있다. 후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상 조사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있었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혁명으로 이끌어 낸 진원지는 번잡한 평야지역 보다 한적한 진안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이후 최익현의 의병 창 의도 성수면 도토리 삼우당에서 습제 최제학의 치밀한 계획으로 무성서원에서 거사한 일이나 호남창의동맹에 정재 이석용의 최초 모의 장소는 임실 성수상이암이나 마이산 용암에서 거사한 사실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4. 진안의 농민혁명군과 관군의 전투상황

진안지역은 동학접주 김개남 부대가 남원에서 한양으로 이동하는 지역에 해당되어 초기에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약간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러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항일의병장인 면암 최익현을 진안으로 모시고 와서 무성서원의 창의를 도운 습제 최제학이 13살 되던 해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고 이 지역(진안군 성수면 도토리)에 동학군 김개남 부대가 들어와 습제공의 부친 지은(芝隱) 최성호(崔成鎬)가 살해되는 비운이 있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일로 13살 습제공께서는 “내 마땅히 원수를 갚은 뒤에야 장례를 모시리라”고 하며 형인 약천(若川)공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끝내 고집을 피웠다. 그 이후 김개남이 관군에 잡혀 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고 집상(執喪)하였다.¹⁷⁾

※이병항 선생의 기록(일기)에 의하면 이곳에서 주위의 권고로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인삼 씨를 심어 이식하려 할 때 흙비(비)가 내려 실농을 하였다고 하였다.

16) 박영희(1892~1900). 공의 휘는 영희요, 자는 학규, 호는 응송(應松)이다. 밀양인으로 고종 30년(1892) 완도면 죽도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황준성 의병장이 유배 중 명륜당에 서당을 열고 있을 때 사제지간의 연을 맺었다 한다(당시 17세). 황준성과 같이 탈출하여 강성택 의병진에 합류하였는데 황준성은 의병장으로 추대되고 그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의병활동을 전개해 갔다. 심적암 전투에서 기습을 받아 부상을 입었는데 황준성의 권유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대홍사로 피신했다. “정인담”을 사승으로 하여 수학하였으며 후에 광복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하여 활동하였으며 한용운의 추천으로 대홍사 주지, 동국대학교 강사 활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황준성 의병장의 공적을 찾아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본인 또한 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양자인 박정부 씨가 두 분의 훈장과 제반 공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7) 『습제실기』, 『정은집(靜隱集)』: 이병항(李秉恒)(2)저 연보(年譜)에 “三十三歲 甲午(1894) 留顔子洞書齋東匪大熾九月以後歸而築室于楮洞避難躬耕(삼십삼세 갑오(1894) 유안자동서재동비대지구월이후 귀이축실우저동피난궁경)” 33세 갑오(1894)에 진안군 안천면 안자동 서재에서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동학군들이 들어와 서재가 불에 탔다. 그 후 9월 주천면 닥박골(닥나무가 많이 생산되어 이름이 닥박골이 하였다 함)에 집을 짓고 피난 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1) 용담전투(龍潭戰鬪)

(1) 1894년 11월 8일 접전

용담군수의 보고 및 교도대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농민군의 공격이 빈번했는데 1894년 11월 8일(음)에는 진안, 고산, 진산, 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 수 만 명이 북쪽으로부터 몰려오고 무주 이용백 3부자는 그 부하 수 천 명을 거느리고 동쪽에서 포위해 쳐들어와 수성군이 이에 저항했으나 다음날 9일 오시(午時)에 마침내 그들에 패하여 공해(公廨: 공청) 44칸과 인가 47호가 불에 타고 인명 피해가 17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11월 14일에는 일본군 白木誠太郎(시라끼)중위와 교도대가 진주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이상의 자료를 검토할 때 용담지역은 동학농민군이 금산과 더불어 한양 진군시 작전상 중요한 지역으로 동학농민군이 총공격을 하여 용담을 함락시킬 정도로 이 지역 전투가 2일 동안 치열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과 교도대가 이 지역에 진주하여 상조림장을 전투(11월 14일), 진안읍전투(11월 16일), 고산산전투(11월 17일), 고산읍내전투(11월 18일)로 이어지면서 동학농민군들은 전멸되다시피 하였으나 대둔산까지 후퇴하여 최후까지 저항한 것이다.

(2) 용담전투에 대한 관련 자료

『구 용담지(龍潭誌)』(1972년 발간)에 수록된 〈선생안(군수임명록)〉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즉 縣令林正洙高宗甲午六月到任 同年十二月東匪陷本郡立碑(현령임정수, 고종갑오 6월 도임. 동년 12월 동비함본군입비)라 기록되어 있어, 용담현이 함락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진안지(鎭安誌)』(1924년 갑자) 번역서에는 선생안에 “임정수 현령(1894-1897)은 동학군에 의해 본군(本郡)이 함락될 때 사망하였고 비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용담읍은 한때 함락되어 읍내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며칠간 연기가 올랐다. 사람이 이진 가축이진 살아있는 생물까지도 피해를 입어 사상(死傷)과 피해가 많았다. 하지만 『용담지』와 『진안지』에서 말하고 있는 현령 임정수는 함락될 당시 사망하지 않았다. 임정수는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1897년까지 용담군수로 재직하면서 중앙에 보고한 『군수보고』(3)「각주3 「사법품보」 제19책 「전라북도 보고 제24호 “龍潭郡 捉因火賊朴文先病死事”」(1897년 2월 16일), 「사법품보」 제23책 「전라북도 보고 제42호 龍潭郡在因賊漢白希俊痢疾致斃事(1897년 6월25일), 위의 기록은 용담군수 임정수가 전라북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관찰사가 중앙의 법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1897년 6월까지 임정수가 군수로 재직하였음을 증빙하고 있다. 또한 「사법품보」 제28책 「전라북도 보고 제65호 龍潭郡私掘罪人漢相勳供案開錄報告」(1987년 11월 17일)에는 용담군수가 조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용담 방향의 동산에 있는 행군수 임정수영세불망비 역시 그 즈음에 세워져 임정수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잘못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용담군수에서 물러난 임정수를 위해 후임군수 조정식은 군민들과 더불어 영세불망비를 세웠다. 용담군청 옆에 세워 그의 공로를 기렸는데 현재는 수몰지구가 되어 방향의 동산으로 옮겨져 있다.

임정수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군청이 불에 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군수 소임을 다했다고 한다. 나주임씨 ‘정자공파(正字公派)’ 후손 임채규(林采圭, 1828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증언에 의하면 임정수는 재임시 읍내가 불바다가 되어 폐허가 되자 성남에 있는 임군수 소유의 임야

에서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짓고 복구하는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 마음을 기려 영세불망비가 섰다고 임채규 씨는 증언하고 있다.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이처럼 진안에서도 여러 전투를 통해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패퇴하여 대둔산 방면으로 패주했다고 한다.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정협균(정매일제과산업대표, 진안을 연장리 거주) 씨는 할머니로부터 어릴 때 전해들은 이야기를 증언했다.

정협균: 할머니께서 어릴 적에 전해들은 이야기를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때 동학군들이 용담으로 많이 후퇴하면서 전투가 일어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동학군이 밀릴 때 일본군이 들어와 용담에서 많이 죽고 뒤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싸웠으니까 많이 죽었겠지요.

이용엽: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협균: 지금 살아계시면 한 120살(당시 2003년)정도 되셨을 거예요. 저는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어릴 적에 봤다고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요 뭐. 용담향교 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춘향전에도 보면 이도령이 금산, 진산, 용담 어디 어디를 거쳐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쪽 그쪽이 다 연결되었나 보더라고요. 길도 있고요.

이용엽: 그러면 할아버지나 증조부님께서는 동학전투에 가담하셨나요?

정협균: 할아버님과 증조부님께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해요. 그래도 그때 용담 사람들은 동학군에 가담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외지에서 결성된 동학군이 들어와서 싸웠다고 그래요.

이용엽: 할머니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정협균: 할머니 고향은 달기(“달가원”이 있던 월계리)입니다.

이용엽: 그 때 임정수 군수의 군수보고에도 보면 무주, 진안, 금산, 고산에서 들어와서 용담에서 싸웠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03.10.15. 면담내용)

이상 면담 내용을 보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용담의 실정에 대해 『정은집(靜隱集(智))』(李秉恒 著)에서 보면,

“甲午 東匪之惑愚-----本邑陷沒餘燹蔓延及己如于產物 書籍掃地無餘---”라 하여 읍이 함락되고 물바다가 되어 물산과 저적 등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등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정은 이병항은 당시 33세 때 안천 안자동에서 서당 훈장을 하고 있을 때 동학군이 마을에 들어와 서당이 불에 타서 주천 닥박골에 들어가 피난 생활을 하였기에 그 내용이 문집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용담의 이러한 전투상황에 대해 시인이며 사진작가인 고 권진희¹⁸⁾가 쓴 아래 시는 용담지구가 수몰되기 전 10년에 걸쳐 작가가 손수 답사하며 쓴 서사시로 자료와 증언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였으며 전투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노략질
그 등살에
백성 허리 휠 때
동쪽에서 사람이 곧 하늘 이니라
인내천(人乃天) 사상
서쪽에서는 1894년
드디어 고부 땅에 세운 제폭구민의 깃발
하늘 높이 들고 일어났다
무주 완주(고산)금산, 진안 등지에서
400명이 용담으로 집결
이때 관군에 맞서
뒷동산 용강산 봉화대에 횃불을
발혀 기세를 올리고
관군 부대와 결전
큰 전투가 시흘간이나 벌어져
마을은 불에 타고 밤에도
대 낮 같이 밝았다
한편 11월 전주시
곰터재까지 후퇴한 동학농민군
새로 일본군이 합세한 관군에 당하지 못해
다시 진안읍까지 후퇴
왜군의 화력에 당하지 못하고
그해 가을 추수도 끝날 무렵
성남사람들은 마을 앞으로 모였다.
갑자기 동북쪽 용담 소재지 쪽이 밝아오며
환히 용강산이 붉도록 밝다
“넌 집에 불이 타는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타오르는 불길
마을 사람들은
뒷산 성안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개남 동학군이 들어왔다.
뒤쫓던 관군과 왜군
몸채 행랑채 할 것 없이
몽땅 불 놓고 기세를 올렸다.
12월 6일 시라끼(白木誠太郎)가
거느리는 왜군 부대가 통과할 것을 알고

18) 권진희(1931~2002). 순창출신으로 사진작가이며 시인, 향토사학자이다. “시조문학” 천요로 시집 「어느 기항지」(82), 「회문산 바람」(87) 「용담」(2000). 사진집 『풍장의 세월』(91)등 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

동학군 600명이 진안현 서북방 실상에
잠복하여 싸웠다. 그러나
화력에 못 이겨 18명이나 희생되고
300여 명이 체포되어 고목나무에 효수당하는
아, 슬픈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권진희, 「용담의 동학농민혁명」

2) 상조림장(上照林場) 전투

1894년 11월 9일 접전. 용담현청이 함락되고 11월 14일 시라끼(白木誠太郎) 중위가 인솔하는 일본군과 교도대가 용담에 진주하였고, 곧 정천(程川)으로 진격하여 동학농민군 수천 명과 접전하였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11월 13일 밤 노래재(가치: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에서 유숙한 후 다음날(14일) 용담으로 행군하려고 노래재를 내려와 상조림 아래 들판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을 지방의 수성군처럼 과소히 여겼다. 아직까지 일본군의 신무기 위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동학농민군들은 검정색 군복차림의 일본군을 단번에 조치하려고 일제히 공격을 하였으나 이때 일본군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동학군이 오기를 기다려 매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농민군들은 겁 없이 진격하였고 미리 총을 겨누고 었드려 있던 일본군은 사정없이 총을 발사했다. 카트링 기관총을 비롯한 스나이더 소총, 무리다 소총의 위력은 엄청났다. 비록 일본군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수천의 농민군은 당해내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 한다.

교도대장 이진호(李軫鎬)의 보고에 의하면 이날의 전투에서 사살이 30명이요, 포로 20명 가운데 서도필(徐道弼), 박만호(朴萬鎬), 이만실(李萬實), 조운삼(趙允三), 박치팔(朴治八), 김운일(金允一) 등 5명을 포살하고 나머지는 효유방송(曉諭放送)했다고 보고 하였다.¹⁹⁾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해 「파주염씨열녀비(坡州廉氏烈女碑): 염씨는 동학농민혁명으로 가족과 살림살이가 불타버려 친척집에 의지해 살았다고 한다 정전면 봉학리 면사무소 옆」에는“.....東亂家燒產焚托寄族戚勤孜紡績立門戶於艱.....”라 하여 상조림장 전투 이후 장천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²⁰⁾

이처럼 상조림장 전투는 전북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최초로 접전을 벌인 전투로 이날 교도대의 전과보고에 의하면 사살 30여 명, 포로 2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수 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사살되고 노래재로 패주하였다고 한다.

19) 巡撫先鋒陣騰錄 第四. 甲午十一月 二十二日. 教導中隊長 爲牒報事令月初五日 派送隊官李謙濟率兵丁一隊出去各邑而到靑山石城里與彼徒數萬名接戰一場殺得四十餘名是乎遣初八日回軍錦山之時到沃川梁山場又達彼徒不知幾千名廝殺五十餘名是乎遣初十日既到錦山邑是乎則彼徒數萬名布陣邑中山上山下□□□□是乎所混戰一場廝殺五十餘名是如爲報是乎只緣由馳報事...(하락) (동학농민전쟁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4권, 이종학 사운연구소, 1996, pp.5~9.)

20) 姜參奉明善將立其先妣貞夫人 坡州廉氏烈女碑一日指道郡儒狀來示曰子居一鄉詳知貞夫人美跡令圖久遠不朽舍子其誰子須焉記謝非其人不獲曰貞夫人梅軒諱悌臣后承範女關西大將軍諱元老后嘉善貫晉州姜成寬之妻性姿柔婉及于歸孝事舅姑禮相君子年三十三夫嬰齊疾百方救護誠無不致竟遭崩城矢以下從顧念先祀無托幼孤孀保強忍執喪葬祭如禮時值東亂家燒產焚托寄族戚勤孜紡績立門戶於艱危之日扶綱常於頽敗之地儒論自在建閣豎碑略其事實以記焉龍潭□廟□員 韓鎮洙 撰.

고(故) 이상래(李祥來: 1896~1979) 필자의 부친 역시 노래재에서 수많은 농민군이 죽었다고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다. 선친이 살고 있는 마을 상조림 아래 들판에서 싸운 사건이라 충소리가 나니 산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검정색 군복을 입은 일본군과 흰 바지저고리에 죽창을 들고 달려드니 기관총을 난사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니 수 백 명이 넘게 죽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당시 가을 추수를 한 들판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정규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신식무기인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사격을 하니 동학군은 힘 한 번 써 보지 못하고 무참히 죽어갔다.

해방이후 벌목을 하기 위해 노래재 주변에 산판 길을 내는데 많은 유골이 나왔다고 들은 적이 있다. 향후 노래재 동학농민군 유적발굴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3) 진안(鎭安) 전투

1894년 11월 6일 접전하였으며 주동자는 전세일이다.

교도대장 이진호(일제강점기 전라도 장관(관찰사))의 계속된 보고에 의하면 11월 16일(양12월 12일)에는 진안에 이르러 수 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저항하여 접전 끝에 수 십 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조림장 전투에서 크게 패한 동학농민군들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진안현에서 수 천 명이 현(現) 진안초등학교 뒷산과 성묘산에 포진하고서 일본군과 교도대에 맞서 공격을 하였으나 신식 화력을 앞세운 시라끼 중위가 거느리는 일군의 공격에 밀려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이때 동학농민군 주동자는 자살했다. 약 3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체포되어 진안초등학교 뒷산 기슭의 밤나무 아래서 효수(梟首)²¹⁾당하고 일부는 군하리 제방가의 고목나무에 효수해 죽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주동자는 전세일(全世一) 또는 전세도(全世道: 본명 銀甲)였는데 관군에 잡혀 효수형을 당했다. 그의 가족들은 목 없는 시신을 거둬 진안읍 군상리 산 113번지에 안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진안 출신 농민군 50여 명이 도망치다 관군에 쫓기는 몸으로 집에 있다가 관군이 오면 집 뒤로 도망을 쳤다. 급한 상황에서 뒷문으로 도망을 쳐야 했기 때문에 뒷문이 없는 집은 제값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주동자라 전해지는 전세일(全世鎰: 1846.9.27.~1894.11.16.)을 찾기 위해 천안전씨 족보를 검토한 바 그의 후손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상균(祥均)이 아들이 없어 양자 승률(承律)이 입적되었으나 이도 후사가 없이 사망하였고 현재 전세일의 손녀 두 분이 살아 있다.

진안읍 군상리 861번지에 살고 있는 전초옥(89세), 진안읍 군상리 402-5번지에 전채옥(86세) 씨가 살고 있다. 묘는 당곡(唐谷)입구에 있으며 외손자인 정인창(진안읍 현대주유소 경영) 씨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은 조부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

4) 고산 산천리 전투와 고산 전투

진안 전투에서 일본군에 패한 동학농민군은 운장산으로 도주하였다. 일본군은 그들을 계속 뒤쫓아 추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17일에 고산 산천리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수 백 명의 동학농민군과 뒤따라온 일본군과 접전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30여 명을 포살하였고 농민군은 패하여 고산으로 도주하였다.

18일에는 고산에서 각처에서 모여든 동학농민군이 수만으로 헤아리는 대 부대가 결사 향전으로

저항 하여 격전을 벌였으나 이 싸움에서도 일본군이 동학농민군 수 백 명을 사살하고 포로 30여 명 가운데 동학접사(東學接司) 고산 이만학(李萬學), 여관서(呂寬西), 진안의 김치서(金致西) 등 3인을 구금하고 창성도(倉聖道), 임성원(林聖元), 김중이(金仲伊) 등 3인을 포살하는 외에 나머지는 효유 방송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3읍(용담, 진안, 고산) 4처(상조림 전투, 진안전투, 산천전투, 고산읍전투)의 접전에서 노획한 무기는 총 2백 자루, 창 3백 자루, 화약 천여 근, 연환(鉛丸) 10여 두였다고 하였다.(선무 선봉진 등록, 갑오 11월 22일조)

◆ 대둔산 반거 동학당 토벌 보고²²⁾

2월 20일 오전 11발, 전보 보고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발)

1. 중로(中路) 분진대(分進隊)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음.
2. 중대는 어제 오후 2시 이곳에 도착하였음 같은 날 4시 무내특무조장(武內特務曹長)이 돌아왔음.
3. 무내특무조장이 돌아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둔산은 대단히 큰 바위산이며 겨우 한 줄기 작은 길이 통해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겨우 오르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지대는 매우 곤란함으로 참으면서 여러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깊은 안개를 이용하여 20여 리 남짓 되는 암석을 포복하여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우리 병사와 장위병 병사를 시켜 세 방향에서 포위, 깊은 안개가 걷히는 것을 기다려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무내특무조장은 장위병 대원 윤세영, 김광수 2명과 우리 병사 1개 분대를 이끌고 다시 산을 내려갔다가 암석을 기어 올라가 적의 동굴 뒤쪽 밑에 이르렀던바 암석이 벽 모양으로 서 있어서 기어 올라갈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서 적이 눈치 채지 못하는 틈을 타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다. 그랬더니 적도들이 대항하여 어떤 자는 천 길이 되는 계곡으로 뛰어내리고 어떤 자는 암굴 사이에 숨어 버렸다.
- 그래서 살아 있는 자를 모두 포박하려 하였으나 돌격이 끝난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장위병의 관리가 이를 모두 총살하고 겨우 한 동지만 남겼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 동지에게 적의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적은 25명이 숨어 있었고 대개는 접주(接主) 이상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명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
4. 압류 서류에 의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적도 중 중요인물로서 도금책(都禁責), 최학열(崔學烈), 도집강(都執綱)(.....이하 일행 불명(不明.....), 교접(教接) 강태종(姜泰種), 봉도(奉道) 김판동(金判童)이었음, 기타 서류에 없는 자의 성명은 자세하지 않음.
5. 사람 다리를 만들어 소굴로 올라갈 때 기어 올라간 자는 일등졸(一等卒), 나수선장(那須善藏), 동(同) 월지음태랑(越智音太郎)이라고 함.
6. 이상 적도 소멸에 대한 것은 오늘 아침 금교인천 병참사령관(今橋仁川兵站司令官)에게 전보로 알렸음.
7. 중대는 오늘 아침 회덕(懷德)을 향해 전진하려 함.

이때 동학농민군 중 일부 패잔군은 대둔산으로 쫓겨가 웅거하여 대치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처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대둔산의 최후 전투사황을 일본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1) 대죄(大罪)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했던 참형.

2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6, 1991, pp.19~20.

이상 기록으로 볼 때 고산 전투에서 일본군 1개 중대와 동학농민군이 접전 끝에 완패하고 남은 병력이 후퇴하여 대둔산에 은거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장위병 병사를 시켜 포위하고 암벽을 포복하여 올라갔으나 암석이 벽과 같이 가파르니 사람 다리를 만들어 기어 올라가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그 전과를 보고한 문서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산 전투로 동학농민군을 완전 소탕하고 중대 병력은 충남 회덕을 향해 전진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 대둔산 부근 전투보고²³⁾

작성자: 특무무내진태랑(武內眞太郎)

작성일: 1895년 2월 18일(양력)

1. 2월 17일 지대(支隊: 일본군 3개 분대와 한병(韓兵: 장위병으로 추정 30명으로 편성)는 고산 현에서 중대장으로부터 대둔산에 틀어박혀 있는 적도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여 오후 4시 30분에 대둔산에 도착, 양장면 기동에 이르니 먼저 적도 토벌을 위해 전주에서 파견된 한병(韓兵: 사관 1명 병졸 30명)이 대포를 산 위로 끌어올려 적의 소굴을 향해 줄곧 포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포의 위치가 적의 소굴에서 약 1,500m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계다가 200~300m 아래쪽에서 포격했기 때문에 포탄은 모두 적의 소굴에 미치지 못하고 훨씬 전방에 떨어져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다. 단지 헛되이 포탄을 계곡에 버려서 오히려 적의 조롱거리를 자초하는 꼴일 뿐이었다.

2. 지대는 달리 생각하는 바 있어 그 날은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대를 그곳에 사영(舍營)시키고 韓兵 사관 윤세영, 김광수와 함께 산위로 올라가 정찰하였다. 그랬더니 적의 소굴은 대둔산 속의 한덕산 산정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었다. 이 산은 전주 제일의 고산대(남쪽에 서 오르면 약 6km 남짓, 북쪽에서 오르면 약 8km남짓) 높이 솟은 산맥이 길게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한 허리에서 위쪽으로는 대암, 거암으로 되어 있으므로 쉽게 등반할 수 없다. 적은 큰 바위 사이에 3채의 집을 짓고 항상 여기에 거주하며 경계가 삼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 것을 발견하자 일제 사격을 몇 번이나 하였다.

또 지방민의 말에 따르면 적은 작년 음력 11월 중순경부터 5, 6명이 산 위 암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공주의 군대가 이것을 알고 15, 6일 전에 와서 3일 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어 공주로 되돌아갔으며 그 후 민병이 와서 공격했지만 그 중 한사람 우연히 총 한 방을 맞아 부상하는 바람에 민병이 크게 겁을 먹고 금방 무너져 달아났고 또 2, 3일 전부터 공주의 군사가 와서 공격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으므로 각지의 적이 이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 모여들어 지금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또 관군이 온 것을 알면 큰 돌과 거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총을 쏘아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계다가 적의 소굴은 몇 길이나 되는 바위 위에 있으므로 사다리가 있어야 겨우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으므로 내일(18일 오전 3시를 기해)야습할 것을 결심하고 오후 6시 산에서 내려와 사영 하였다.

3. 지대는 적을 야습하기 위해 오전 3시 집결했지만 바람과 비가 심하고 거기다가 안개가 자욱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으며 산 또한 험준하여 암석이 담 벽 같이 서 있었으므로 촌보도 나갈 수 없었다. 무리하게 아군의 손해만 입을 것을 우려해서 대책을 변경 동트기를 기다려 협격하기로 하였다. 오전 5시 일등군조(一等軍曹) 소송직현(小松直軒)에게 2개의 분대를 인솔케 해 적의 배후로 40리 남짓 우회하게 하였다.

그리고 소군(小軍)은 오전 6시 30분 일본군 1개 분대와 장위영병 30명을 인솔하여 적의 정면을 공격하기 위해 길이 4m남짓 되는 사다리를 만들어 겨우 암석을 기어오르고 혹은 나무에 매달려 겨우 겨우 적의 소굴 몇 약 100m까지 당도하였다. 이때 적이 우리 군대가 온 것을

알고 썰어두었던 돌을 떨어뜨리고 큰 나무토막을 투하 하였다. 그 울림소리는 정말 벼락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군사는 다행히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정면 바로 밑에서는 도저히 공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 바위를 포복해서 적의 왼쪽으로 겨우 산꼭대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추락할 정도였으므로 그 위험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단지 아래쪽에서 까마득한 사람의 말소리만 들렸을 뿐이다.

4. 오전 9시 30분, 배치가 모두 끝났다. 그 배치는 다음과 같다.

한병(韓兵) 20명을 교장 지휘 하에 적의 전방 사면(斜面) 왼쪽(약 200m)고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한병과 일본군 1개 분대를 외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앞서 적의 배후로 우회시켰던 송송군조(小松軍曹)가 이끄는 支隊가 오전 10시에 도착했으므로 이들을 뒤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짙은 안개가 개는 것을 기다렸다. 오전 11시 10분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짙은 안개가 모두 걷혔으므로 비로소 적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서 적은 요지를 지키기 위해 그 중 5, 6명이 암굴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전면에 있던 한병이 그들을 저격했는데 총알이 저의 하지(下股)를 관통하였다. 적은 불의의 기습을 받아 당황해서 도주 바위 위에서 늘어뜨린 새끼줄에 매달려 기어올랐고 계속 사격하면서 우리에게 저항하였다. 그래서 세 방향에서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적의 소굴은 삼방(三方)이 큰 바위로 뒤덮여 있어서 겨우 지붕만 보이고 전면은 큰 돌을 쌓아 올려 여기에 총구멍을 뚫으며 그 위에다 거목을 올려놓아 우리 군사가 오는 것을 기다려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이 그 요새가 매우 견고하고 또한 우리들의 사격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 방향에서 맹렬한 엄호 사격을 가하게 하는 한 편 오후 1시 40분 소관 스스로 일본군 1개 분대와 한병 사관 김광수를 이끌고 적 배후의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 겨우 소굴 뒤쪽 아래까지 돌진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 예측이나 했겠는가. 암석이 몇 길이나 담벽 같이 서 있어서 등반할 방도가 없지 않는가. 먼저 가지고 왔던 사다리는 산이 험준하여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중도에서 내버렸다. 그래서 사람 사다리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올라가게 했으며 15분간을 소비해서 겨우 전 분대원을 등반시켰다. 그런데 적은 오직 산이 험한 것만 믿고 배후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면의 한병 머리위에만 맹렬한 사격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분대는 전부 올라와 두 번 일제 사격을 가하고 그 불의를 틈타 소리를 지르며 돌격 하였다. 그러자 적도들은 허둥지둥 당황하여 어떤 자는 바위 굴 속에 숨었다. 살아남은 자는 모두 생포하려 했는데 우리의 돌격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한병들이 이들을 모두 죽였으며 겨우 어린 소년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이 소년에게 적의 상황을 물었다. 그랬더니 적 25, 6명이 틀어박혀 있었는데 대개는 접주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그 성명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적은 소굴에 28, 9세쯤 되는 임신한 부인이 있었는데 총알에 맞아 죽었다. 접주 김석순은 한 살쯤 되는 여아를 안고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뛰어든다. 암석에 부딪혀 박살이 나 즉사하였다. 그 참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5. 오후 2시 적의 소굴을 모두 함락시키고 그 집도 불태웠다.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산을 내려왔다. 이때가 오후 3시였다.

6. 입수한 서류에 의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들 적 가운데 주요한 자는 도금찰(都禁察), 최학연(崔學淵), 도집강(都執綱), 장지홍(張志弘), 최고금(崔高錦), 도집행(都執行), 이광의(李光儀), 이광우 대정(大正), 이시탈(李是脫), 접사(接司) 조한봉(趙漢鳳), 접주(接主) 김재순(金在醇), 접주 진수환(陳秀煥), 교수(教授) 강태종(姜泰種), 봉도(奉道) 김판동(金判童)이다. 기타 서류에 없는 자의 성명은 자백하지 않았다.

7. 사람다리를 만들어서 맨 먼저 소굴에 올라간 자는 일등졸(一等卒) 나수선장(那須善藏), 일등졸(一等卒) 월지선태랑(越智善太郎)이다.

피아의 사상자: 아군 없음. 적군 전사자 25명, 부상자 없음
 노획품: 서류 약간 화승총 50자루, 화약 약간, 탄약 소비 1176발(8)

이상 기록을 검토할 때 일본군 보다 한병(韓兵: 사관 윤세영, 김광수가 일본군 지휘하의 토벌에 참여하여 25명 전원을 사살하였다. 그 중 28, 9세의 임신부가 굴속에 사살 되었고 접주 김석순(여)은 1살쯤 되는 여아를 안고 천 길 계곡으로 뛰어들다 암석에 부딪혀 박살이 나 즉사하였다는 기록은 가슴 아프게 하였다.

5. 전봉준의 딸 전옥례 여사

1) 전옥례 여사의 삶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있을 후 전봉준 장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총공격에 패하여 결국 순창 피로리에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정읍 산외면 동곡리에 있던 그의 장녀 全玉禮(1880~19 , 당시 15세) 여사는 잡히면 삼족을 멸한다는 소문에 서슬퍼런 일제의 마수를 피하기 위해 단신으로 진안에 잠입하여 은신처로 마이산 금당사에 들어가金玉連으로 변성명하고 7년 동안 과부로 행세하며 공양주가 되어 굶은일을 도맡아 해가며 지내다가 23세 때 부귀면 신정리 이영찬(李永贊: 경주 이씨)과 결혼하여 7남매를 낳았으나 후환이 두려워서 아버지 전봉준의 이야기를 못하고 살았다 한다. 이런 고통의 세월이 지나 1968년 녹두민요를 구가하게 되자 비로소 본인이 녹두장군의 딸이라 사실을 지식들에게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70년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정읍)’가 있고난 뒤 비로소 그동안의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전 여사는 1880년(고종 경진) 4월 8일 당시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에서 전봉준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8세에 조부모를 따라 고부군 궁동리 양교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나무가 있었던 사실도 증언하여 사실과 같음을 인정하였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정읍선거 유세시는 그의 손자인 이회종이 그를 모시고 가서 유세장에 업고 들어가며 “전봉준 장군 딸이 참석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니 주최 측에서 그를 단상에 모셨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천안전씨옥례여사 묘비(天安全氏玉禮女史 墓碑)

예로부터 婦道에 三從의 義가 있어 왔으니, 어려서는 父母에 孝해야 함이요, 자라서는 出嫁하여 夫君에 孝해야 함이며, 늙어서는 子息에 孝해야 함이다. 부모에서 떠나면 孤가 되고 부군을 잃으면 寡가 되어 자식에 孝하지 않으면 獨이 되나니 三從의 義는 우리 生活의 基本 倫理였다. 이에 조실부모하고 천신만고 끝에 부도를 다한 현부가 있으니 바로 천안전씨 옥례여사이다. 여사는 1880년 고종 경진 4월 8일 당시 태인현 산외면 동곡에 민족의 선각자요 갑오혁명의 영도자인 전봉준선생의 장녀로 태어나 8세에 조부모를 따라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로 이사하여 자랐다.

1894년 갑오혁명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고 천애의 고아로 유리하다가 마이산 금당사에 들어가 김옥련으로 변성명하여 공양주가 되었다. 그리고 23세에 부군 경주이공영찬 선생과 결혼하여 5남2녀를 두고 현모양처로 부궁을 다함애 그 숙덕의행이 향린에 떨쳤다. 물환성리하여 조국광복 후 1968년 무신에 세인들이 녹두민요를 구가하게 되자 비로소 所從來를 세상에 밝히니 어찌 놀랍고 장하지 않으리요. 또 황토현기념탑에 참배하고 갑오농학혁명기념제전에 참석하여 “내 이제

뒤편 인생이 되었으니 70년의 유한이 풀렸도다”하고 1970년 기유 11월 27일 별세하니 향년 91이요, 묘는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산 사기정골에 안장되었다. 5남의 長에 규황이요, 次에 규석, 규풍, 규흥, 규문이요. 壻長에 본관 전주 李聲儀요, 次에 김해 金鍾業이니 孫이하는 별기와 같다. 장녀 순이, 장손 燾鍾의 전력으로 伐石立碑함에 있어 고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不文辭치 않고 이에 楮문을 드리는 바이다.

1984년 갑자 4월 15일

前 甲午東學革命記念事業會 會長 崔玄植 撰

이처럼 한 많은 일생을 살아온 전옥례 여사는 임종시 아들 李周奭과 장손 李燾鍾에게 녹두장군의 유해를 찾아 덕천리 녹두장군 기념탑에 모시고 관리인에게 논 5두락을 주어 묘소를 관리하도록 유언을 마치고 1970년 1월 5일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전봉준의 딸이나 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기에 전옥례 여사도 일부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했으나 장군의 공초 기록이나 족보 등 제반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전봉준 장군의 장녀로 거의 확인 되고 있다. 그의 근거 자료를 살펴보면, 제적부, 비문, 신문기사, 증언 등이다.

2) “소고당 규방가사집”의 동학이야기

소고당 고단(1922~)여사²⁴⁾가 쓴 소고당 가사집 동학이야기에 정읍 산외 동곡리에 사는 전장군의 차녀가 행방 모르는 언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전옥례 여사를 지칭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소고당의 동학이야기를 소개한다.

옛날 옛날 어린 시절 조모말씀 있었나라
 어린손녀 끌어안고 오순도순 옛이야기
 예순할 때 말씀드던 귀밑머리 계집애가
 시집살이 四十년에 내 나이 예순이라
 예순해가 흘러가도 가슴속에 남은 애기
 기억에 사라질까 말씀이 끊어질까
 우리할매 흥내내어 히튼수작해보노라
 「새야새야 파랑새야 全州古阜 녹두새야
 웃넉새야 아랫넉 새야 함박쪽박딱딱후여」
 그 시절 자취 밟아 산외(山外)지행 살펴보니
 九將里 萬兵里가 우연찮은 지명일세
 貞良里 앞 들판은 동학농민군의 교련지니
 전봉준과 쌍벽이룬 金開南의 출생지요
 양병하던 그곳이라 우리어찌 잊을손가

24) 소고당(紹古堂) 고단(高端, 1922~) 여사는 전남 장흥 고재봉 선생의 후예로 정읍 산외면 동곡리 도강김씨 환재 씨와 결혼하였다. 시댁인 동곡리는 전봉준 장군이 살던 곳이요, 또한 동학지도자 김개남 장군이 살던 고향이니 어릴 적 할머니 품에서 들은 이야기와 시댁에 들은 얘이들을 가사체로 기록하였다. 동학의 실상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느낀 내용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쓴 가사는 주로 역사에 근거한 가사가 대부분이며 2003년 봄에는 장흥문화원에서 고단여사의 문학비를 세워 문필의 힘을 기리고 있다.

23) 국사편찬위원회, 「주일본공사관 기록」 6, 1991, pp.71~73.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 수많은
 군사를 어데다 두고서 전주야
 숲에다 遺屍했노 가보(甲午)세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보리」
 갑오년 고부봉기 선봉대장 녹두장군
 전라도땅 정읍산외 東谷里서 살았다네
 아버지 奎彰赫 탐관오리 학정부패
 항거하다 처형되니 지극성효 전녹두가
 부친원한 설원코자 동학에 입교하여
 김개남과 손을 잡고 교화에 힘을 쓸제
 때는 고종 三十一年 국내정세 어지러워
 人乃天 사민평등 제폭구민 그 정신은
 고부땅 황토현서 첫봉화를 높이들제
 핫바지 동학농민군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앉으면 竹山이요 일어서면 白山이라
 「弓弓乙乙 부적써서 옷깃에 꿰매입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주문을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한 듯
 승승장구 동학농민군은 척왜적양 기치아래
 牛金峙 공격할제 관군이며 일본군에
 악전고투 보람없이 원통하게 패망하니
 청일양국 간섭으로 혁명 큰뜻 못이루고
 제세안민 그 기치가 산산조각 되었구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네 어이 나왔더냐
 솔잎 대잎 푸릇푸릇 여름인가 나왔더니
 저 건너 청송녹죽 감쪽같이 날 속였네」
 「봉준아 봉준아 봉준아 양애야
 양철을 짚어지고 놀미강경(論山江景)이 패전했네」
 김개남은 좌도접주 전봉준은 우도접주
 쌍두마차 달렸건만 천운이 불길턴가
 김개남은 山內宗聖 林모씨의 고변으로
 전주감영 끌려가서 형장이슬 되었구나

녹두장군 전봉준은 순창에서 붙들려서
 한성으로 압송할제 장부의 뜻 당당하여
 汝何居生 물을 적에 山外東谷 대답이요
 애국단심 그늬알라 교수대의 이슬되니
 將卒之義 이렇던가 조장태의 거동보소
 녹두장군 잘린머리 부담안에 담아오니
 장군소실 고부택이 동곡뒷산 장사하고
 장군아들 두 형제를 혈육처럼 길렀으나
 용개 용현 장성하여 병을 앓다 세상 떴네

보국안민 돌에 새겨 원통한 녀 달래는가

녹두장군 기록남아 동학정신 완전타만
 개남장군 자취보소 일자기록 전혀 없네
 供草기록 남았다면 전녹두에 비견하리
 조모말씀 되새기며 녹두장군 외손녀랑
 개남장군 후손들을 정다웁게 찾아보세
 녹두장군 따님한분 織錦谷(직금실) 姜門에서
 일남삼녀 두었으나 외손자 강성진은
 행방불명 자취없고 외손녀 강금례는
 박씨문중 출가하여 동곡리와 斗屋間에
 숨은 듯이 살고있네 일점혈육 박승규가
 동곡후원 녹두묘를 제초하고 수호할제
 言論界서 소문듣고 묘소를 파묘하니
 해골은 간곳없고 한 점 뼈만 남아있어
 세상사람 의심하나 녹두묘가 분명하다
 「녹두장군 봉제사는 고부택이 모셨다오
 어머니 전씨부인 종적모른 형님생각
 콧노래로 흥얼흥얼 떡살담아 곁에끼고
 직금실서 동곡리로 제사보러 가셨지요
 어린시절 그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오
 부인부인 高氏부인 이말씀을 전해주소」
 그모습 살피려니 내눈에도 이슬이라

팔삭둥이 김개남의 소년시절 거동보소
 길을가던 도승이 그아이 비범타만
 시운을 못봤구나 그말들은 개남모친
 주야로 근심터니 글공부가 일취월장
 기골이 준수하여 두목지풍 완전커늘
 이름은 永疇요 癸丑 九月 十五일생
 초취부인 延安李氏 十九세에 상배하고
 任實靑雄 선반마을 서당에서 글갈치며
 전주이씨 속현하여 一子伯述 손자형제
 환옥환봉(煥鑒換鳳) 그 자손이 직금실서 살고있네
 二十一세 입교하여 제세안민 하려다가
 四十一세 甲午섣달 초사흘날 효수되니
 영웅호걸 그자취야 인생무상 이아닌가
 직금실 산등성에 이끼끈돌 우뚝하고
 이름모를 산새때만 중천을 빋겨가니
 파랑새 녀이런가 개남장군 숨결인가
 속뜰이 한가지고 민족혼에 불타도다
 미흡하고 서툰글을 벗넬네야 웃지마오
 어린총기 살려내어 귀밑머리 추억일랑
 바쁜충중 늙으그막에 헤쳐내긴 더 어렵소
 새야새야 파랑새야 족두발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고단, 「동학(東學) 이야기」

전옥례 여사는 평소에 그의 증손자들이 위인전(전봉준)을 읽으면 손자의 입을 막으며 큰일 난다고 못 읽게 하였다고 한다. 전여사의 손자인 이희중 씨의 처남, 황안웅(동양대학원 교수 전 전북문화재 전문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전여사가 전주시 교동 한벽루 근처에 살 때 그 집을 자주 찾아가서 느낄 때 그의 인품이나 예의범절이 분명하고 천자문을 3분의 1정도는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증손자인 이성우(50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위인전, 전봉준 장군에 대한 글을 읽으면 증손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그 말하면 큰일 나니 읽지 말라”하며 전봉준의 이야기는 책도 못 읽게 하였다는 일화를 설명했다.

전옥례 여사가 무엇 때문에 고부에서 첩첩산중 험준한 외딴 이곳 진안에 15세의 어린 나이에 무슨 연고로 찾아왔을까?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진안에는 천안전씨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를 알고 찾아왔든지, 아니면 많은 동학교도가 이곳에 있어 숨을 수 있어 찾아왔든지 분명치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황을 기록한 내용이 없어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봉준 장군의 백운면 오정리 훈장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동학의 접주나 군장급 인물인 남원의 李士明이나 奎和三, 奎益鎬 등이 오정리에서 살았으며 고부의 奎東弼이 이들과 진안에서 의거에 참여하였다 하는 기록에서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옥례 여사의 제적부에 나타난 호적의 기록을 보면 그의 부친은 金春西요, 모친은 姜姓女의 장녀로 개국 490년 명치14년(1880)출생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가공인물이나 전연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김춘서란 인물과 강씨란 누구일까?

김춘서(金春西)란 전봉준과 가까운 인물의 이름을 한 글자 고쳐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 姜姓女란 전여사의 여동생 한분이 강씨 댁에 출가하여 전봉준의 외손녀가 “강금례”라 하였으니 쉽게 생각하여 강성여의 딸이라 호적에 올렸을 가능성도 연구과제로 남는다.

또한 전봉준의 초취 부인이 송씨로(전옥례의 생모) 경허스님과 전봉준은 처남 남매간이란 사실이 최근 밝혀져 경허스님이 전옥련을 금당사에 주선하여 공양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도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기록을 찾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6. 결론

이상 논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진안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주목 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아 특히 진안 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지만 현지답사와 증언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먼저 백운면 오정리 “전봉준 훈장설”을 토대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진안지역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상황 “전봉준의 딸 전옥례 여사”에 대해 3단계로 추진하여 진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명해 보았다.

여러 자료와 증언 답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진안지역이 동학농민혁명에 소외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의 축을 이루어 전봉준을 필두로 하여 거사를 준비했던 진원지 역할을 했다.

정읍 고부나 고창 무장이 농민혁명의 주체로 관군과 투쟁을 하였다면 진안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전봉준 장군이 백운면 오정리에 서당 훈장으로 초빙되어 혁명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었다. 전봉준은 진안에 세거하는 천안전씨들과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동학농민혁명의 계획을 세우고 혁명의 주체세력을 규합하였다.

고부 1차 봉기나 삼례봉기 때 전봉준의 최측근에서 이들이 활동하였으며 일본군의 개입으로 첫 전투지역인 상조림장 전투에서부터 진안을 전투, 고산 산천리 전투, 고산읍내 전투, 대둔산 최후의 항전까지도 진안의 저력은 이어졌으니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범위가 이번 조사 이후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남원(오수)출신으로 알려졌던 동학의 접주(남원, 진안) 이사명(李士明, 1862~1894)이 전봉준의 최측근에서 활약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손자인 이현도(원불교총부 원로법사, 본명 이시재(동재)) 씨의 증언을 통해 이사명의 본명이 기풍(起豐)이요, 동학교단에서 주어진 이름이 士明으로 밝혀진 것이 하나이다. 이사명은 진안 백운면 오정리 출생으로 오수에서 불들려 치참하게 처형되었고 그의 동생이 사문(士文)으로 본명은 기갑(起甲)인데 순창에서 접주로 활동하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자 고창으로 피신했다. 최근 그 후손과 만난 이현도 씨는 이사명과 이기갑의 관계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사명의 묘소도 마령면 계서리 서비산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전봉준 장군의 직속 부관으로 활동하였던 전익호(全益鎬, 1845~1897)에 대해 그의 증손자인 전갑철(前 전라북도청 국장)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전익호 역시 백운면 오정리 출신으로 일찍부터 전봉준과 자주 만나 그의 휘하 직속부관으로 1차 기포 때부터 참여하였고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자 부귀면 오룡리로 가족들이 피해 왔으나 일본군에 발각되어 잔인하게 처형되었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전설로 전해져온 전병화(全炳化, 1842~?)에 대해 “천안전씨족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가 의병장 전해산(全海山)의 백부(伯父)로 그의 손자가 전해산의 양자로 입적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학의 진안 접주인 전화삼(全和三)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부출신으로 전봉준 장군 휘하 군장으로 전익호, 전화삼 등과 더불어 기병에 참여한 인물로 전동필(奎東弼, ?~?)이 있고 삼례 2차 기병 시 진안의 동학 접주로 전봉준 장군의 최측근에서 접사로 활약한 문계팔(문계팔)과 김영동(金永東), 이종태(李鍾泰)등의 주모자급들이 전봉준 장군이 백운면 오정리에서 규합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백운면 오정리는 이사명, 전화삼(전병화와 동일인물로 추정), 전익호, 전동필, 문계팔, 김영동, 이종태 등 전봉준 장군의 최측근 참모진을 배출한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 밝혀지고 있다, 그 당시 구름뚝 서당 등을 복원하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 대외에 홍보한다면 진안 근현대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본다.

*부록: 진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

○ 김종록, 『금척』, 다산책방, 2018, p.259.

그간 마이산에는 낮선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고금당 바위굴에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큰 딸이 숨어 들어왔다. 서울로 붙잡혀간 아버지가 교수형을 당하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금당사 주지 김대완은 카랑카랑한 당대의 선객 경허선사와 도반이었다. 경허는 전봉준의 손위 처남이었다. 그런 경허의 부탁인데 거절할 주지가 아니었다. 주지는 15살 먹은 그녀를 공양주로 삼고 말 못하는 병어리 행세를 하게하고 이름도 “전옥련”에서 김옥례

로 바뀌었다. 전옥련은 23살에 인근 마을 노총각인 이영찬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였다. 먼 훗날 90이 넘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전봉준의 딸임을 밝혔다. 학교 다니던 증손자가 교과서를 펴놓고 녹두장군 이야기를 읽자 비통하게 울면서 그간 숨어 살아온 내력을 풀어 놓았다.²⁵⁾

○ 고단(가사문학가) 여사의 「동학이야기」

고단 여사는 작고하기 전(90여세)에 쓴 글 「동학이야기」이다.

그는 전남 장흥에서 장읍 칠보 도강김씨 김환재와 결혼하였다. 가정에서 한학을 배워 보화에 능통하고 역사에도 해박하여 지상에 칼럼을 쓰기도 하여 (고단 가사집)3권을 남겼다. 시댁의 할머니로부터 전봉준과 김개남의 행적을 자주 들어왔기에 이 「동학이야기」가 가사집에 수록되었는데 전봉준의 가계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참고할만한 자료다.

그가 기록한 내용 중 전옥련은 전봉준의 장녀로 전처에서 낳고 그 밑에 동생이 한명 있고 전처는 죽었다는 내용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전봉준의 장녀로 추정되고 있다.

전옥련의 제적부를 부귀면 사무소에서 2003년에 발급 받은 내용을 보면 부는 김춘서로 동학과 관련 인물의 이름을 1자만 고친 것으로 추정되고 어머니는 강성녀의 딸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옥련의 여동생이 강씨 문중으로 출가하여 강씨가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본인의 이름도 전옥련을 김옥례로 고쳐 기록되어 있다.

○ 고금당 주지 성호스님과의 대화 내용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고금당(옛금동사)을 찾아가 전봉준의 딸이 숨어 지냈다는 “나옹굴(나옹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하였다는 전설)”을 찾아가 살펴보니 사람이 피해서 은신할 수 있는 적지였다.

성호 스님을 만나 전옥련에 대한 질문을 하니 그는 전봉준의 손위 처남인 경허 스님(송두옥의 아들)으로 여동생이 일찍 죽고 전봉준이 처형되자 전옥련은 고아가 되었다. 경허 스님이 이곳 금당사 주지 김대완과는 도반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김대완 주지에게 부탁하여 그녀를 공양주로 삼고 말 못하는 병어리 행세를 하며 나옹굴에서 숨어 지내다 23세에 이영찬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이 제적부와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 되었다.

○ (사)경허연구소 소장 홍현지의 증언

홍현지 소장은 오랫동안 경허선사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경허선사, 성우선사 모음집 「염궁문(念弓門)」을 간행하여 경허 선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국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쓴 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 전봉준과 고금당(전옥련 숨어사는 곳)을 배회하며 지은 시를 골라 추천하여 주었다. 그러나 스님의 시라 이해하기가 어렵다.

참고로 영호당 박한영 선사의 시를 번역하여 보면,

만사가 유유한 백년 인생살이
흡사 나그네가 여행길에 잠시 쉬어가는 듯

25) 이 기록은 마이산 전 금당사 주지(현 고금당주지)성호스님의 증언을 참고 하였다 한다.

향 연기 깊어 세상을 잊고
「파랑새」 날아오니 홀연히 신선을 보네
울긋불긋 단풍 들어 가을이 한창 깊은데
뜬 구름 흐르는 물 석양 노을 일세
지난 인연이 어느덧 다시 이별인데
백발이 성성하여 함께 가련하네
(함경도 갑산에서 쓴 시)

‘영호당에 화답하다’

경허 선사는 영호당보다 18세 연상인데 두 분은 서로 통하여 영호당이 갑산을 찾아가 만나고 돌아온 뒤 영호당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한 글이다. “파랑새”가 기억에 남는다.

아는 것은 알고 이름만 높으니 난세에 위태로워
어느 곳에 이 한 몸 숨어야 할지
어촌이나 술집이건 어느 곳인들 없으랴 만
이름을 감추려 하니 더욱 드러나는 것이 두렵구나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 읊은 시’

이 시는 전국에 체포령이 내리자 피해 다니면서 읊은 시로 본다. 경허 선사는 더 이상 숨어 살기 힘들어 서울 전목서(사형장) 근처에 있는 조계사에 들어가 승복을 벗어 놓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북한으로 떠났다 한다.

홍현지 소장은 사형은 새벽 3시에 집행하는데 경허는 사찰에서 머물다 전봉준의 사형을 기다려 처형 뒤 그 시신을 거두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고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올라가 갑산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입적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03년 10월 21일 화요일 황안웅 교수(이희종씨 처남)증언

이용엽: 전옥례 할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황안웅: 경주이씨, 희종씨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전봉준의 딸이야, 훗날 할머니가 전봉준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녹두장군 딸이 나간다”하면 사람들이 비켜서고 상석으로 자리를 내주었다고 그래. 그래서 전옥례 할머니가 돌아가지자 희종 씨가 그 묘비를 나더러 써 달라고 했는데 나하고 사돈지간인데 쓰면 되겠어? 그래서 최현석 씨가 쓴 거야. 희종 씨 아버지가 나를 참 좋아했거든, 박정희가 정읍에서 유세할 때 전옥례 할머니를 업고 나가면서 녹두장군 딸이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켜섰다는 거야.

이용엽: 그런데 왜 진안으로 전옥례 여사가 왔을까요?

황안웅: 그런데 왜 하필 진안이나? 전병화가 전화삼이라고 그래. 이쪽 마령 성수가 녹두가 왔을 때 인연이 닿았던 거야. 그 인연을 알고 온 거지. 백운면 오정리가 혁명하기 좋은 곳이지, 이쪽은 성수면, 이쪽은 임실군이라 여차하면 이동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古家를 찾아서 상량문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이후 언제 집이 지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 그때 전태성이네 움집만 남고 다 타버렸다고 했거든 그 움집이 돌담을 쌓듯이 하고 그 위에 참외막처럼

였었다고 그래.

이용엽: 전옥례 할머니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황안웅: 내가 전옥례 할머니 이야기를 할게. 내가 북중학교 2학년 때 1960년대, 50년대 말이지. 6·25때 내가 8살이었으니까 58년? 57년 쯤? 우리 조카 성우가 향교골에 살았었어. 조카란 놈이 한국 위인전에서 전봉준 전기를 소리내서 읽으니까 한참 듣더니 할머니가 쉬쉬 하면서 입을 막고는 잡혀간다고 읽지 마라했다고 그래. 조카 이름이 이성우지. 지금 한 49살 정도 했을 거야. 그때는 철모르고 책을 읽었겠지. 내가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둔도 그리 소리 말아” 잡혀간다고 말이야. 그 할머니가 까닭있는 이야기 거든. 후에 나한테 전봉준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실토했거든. 잡혀갈 것을 두려워했어. “할머니 고향이 어디예요?”, “정읍이지야” 희종 씨에게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구. 그리고 나서 전영래 씨가 짚차에 할머니를 모시고 정읍으로 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기에는 나무가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다 맞는 말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 진안 금당사로 간 거야. 진안전씨들과 가문이 되니까 연고가 없이는 가질 않거든. 그래서 금당사 부엌데기가 되었다고 그래, 근데 그 할머니 위엄이 있어요. 조리가 흰하고 예절도 밝았어요. 그리고 천자문을 좀 배웠는데 3분지1정도를 외울 정도로. 원래 집안이 학문을 하던 학자 집안이 분명하다고 그래. 그렇기에 그집 물레에서는 예의범절이 밝았지.

주제발표1.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

1

신 영 우 충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1. 머리말
2. 진안 일대의 동학 세력 검토
3. 1894년 동학농민군 1차봉기와 남원 일대의 사정
4.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와 진안의 사정
5. 맺는 말 - 진안의 동학농민군 참여 인물 조사의 필요

1. 머리말

필자는 30년 전에 1894년의 동학농민군혁명을 권역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제기한 바 있다. 동학농민군 봉기상황을 살펴보면 권역 단위로 활동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차봉기 시기에 중심 무대였던 전라도의 상황도 주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몇 개 군현의 동학농민군이 함께 활동하였다. 이 같은 형태는 2차봉기 시기에 삼남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권역별 활동은 동학의 포접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학농민군은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전국 조직으로 결성한 것이 아니었고, 각 조직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도 갖지 못했다. 관군과 같이 나라의 공권력으로 뒷받침하는 군대가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민군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기초 조직은 접주가 이끌던 접이었다. 대접주는 예하 여러 접을 동원해서 무장봉기에 참여하였다. 대접주 조직인 포가 관장했던 접의 수는 수십 개까지 헤아리기도 했다. 이 같은 동학의 포 조직이 봉기에 나서는 농민들이 가세하였다. 여러 대접주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되면 그 세력은 더 확대될 수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봉기는 동학도와 농민이 합세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전봉준은 고부에서 기포할 때 “원민(冤民)이며 동학(東學)이 합하였사오나 동학(東學)은 적고 원민(冤民)은 많았다.”²⁶⁾고 하였다. 9월에 들어와서 재봉기한 동학 조직은 세력 확장을 위해 농민들을 적극 가세시켰다. 이에 관해 전봉준은 기포할 때 거느린 사람들은 “접주는 모두 동학이요 그 나머지 솔하는 충의(忠義)”라고 하였다.²⁷⁾ 충의는 동학도이건 원민이건 모두 충성과 의리로 참여했다는 말이었다. 2차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은 의병을 자처하고 있었다.

동학은 남접과 북접의 활동이 구별되었다. 전봉준은 “호이남(湖以南)은 남접(南接)이라 칭하고

26) 『全瑋準供草』 初招問目.

27) 위 자료, 再招問目.

호중(湖中)은 북접(北接)”이라고 했다. 호남은 남접이라고 한 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호남에 남접 계통의 동학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호남은 모두 남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전라도 동북쪽에 위치한 진안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들을 일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해서 자료 수집과 사례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진안의 사정에 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삼남과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전역이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격변하던 당시 상황 속에 진안 일대 도 전례 없는 봉기 사태를 겪고 있었지만 실상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록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각 지역 사례연구의 1차자료는 현지 사정을 직접 전해주는 일기와 문서 또는 후손증언 등이었다. 진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런 자료를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례연구를 할 수 없었다. 다행히 2003년에 진안문화원과 전주역사박물관이 『진안지역 근현대 민족운동사 학술보고서』를 펴내면서 제2부에 「진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다루서 진안에서 전개된 전투와 인물에 관한 기초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진안의 동학농민혁명을 권역 단위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없었다. 무주와 장수 그리고 임실의 사정과 연계해서 보면 진안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김개남이 주재했던 남원과 전봉준이 들어갔던 전주의 상황과 연계하면 진안의 사정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

또한, 동학농민군의 구성은 동학도와 ‘원민’이었는데 그 기본 조직과 인맥을 동학 조직이 제공하였다. 진안의 동학도들이 1차봉기에 적극 참여했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진안이 속한 권역의 동학 전파와 세력 확대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접과 북접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원민은 불만과 원한을 갖게 된 농민을 말한다. 진안의 농민이 불만을 가진 배경과 원통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만의 대상은 지방관이었고, 나아가 정부의 고위관리였다. 그것은 조세 수취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19세기 조선사회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는 문제이다. 고종대 격렬한 농민항쟁이 일어나지 않은 진안의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사례연구는 현지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수행해야 하지만 이 발표는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정밀한 현지답사에 의한 보완을 기대하면서 초고 형태로 글을 작성하였다.

2. 진안 일대의 동학 세력 검토

전라도의 동학 세력은 교조신원운동 이후 그 수와 격렬함으로 인해 널리 전해졌다. 특히 1893년 금구 원평집회와 보은 장내리집회에 참가한 후 정부가 주목하게 되었다. 이미 포교를 공인받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모습이었다. 전라감사는 원평집회를 탐지해서 “동학당 6만여 명이 서울로 향할 것”이라고 전보로 보고했다.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풍설이었지만 궁궐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정부에서 놀라게 되었다. 동학도의 주장에 적왜의 기치가 명확히 드러난 이후 일본의 경제도 강화되었다. 일본공사관은 전라도 동학도의 정보를 외무성에 전했고, 총리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 내용이 즉시 보고되었다.²⁸⁾

28) 纂00269100(所蔵館：国立公文書館), 朝鮮東学派ノ挙動ニ関シタル件. 외무대신 陸奥宗光이 4월 12일에 들어온 경성공사관의 정보를 총리 伊藤博文에게 보고한 내용.

원평집회에 참여한 동학도들은 어느 조직에서 동원하여 집결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금구에 운집한 동도(東徒)가 거의 만여 명이나 되었다.”²⁹⁾고 한다. 금구관이나 전주감영의 향리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탐지해서 못하였다. 장내리집회와 같이 향리들이 길목에 자리를 잡고 오가는 사람들의 행선지와 일행의 수를 기록했던 자료가 없는 것이다. 용담과 진안을 비롯한 전라도 여러 군현에서 모였을 것이지만 전모를 추측할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원평 집결지는 원평전 냇가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적합한 빈터가 있을 뿐 아니라 흐르는 냇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당시 집결지에 있던 동학도들은 목봉 두 개를 들고 주문을 크게 외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봉을 부딪쳐서 내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전한다.³⁰⁾

보은 장내리에는 일시에 삼남은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동학도들이 집결하였다.³¹⁾ 전라도 원평집회나 경상도 밀양집회는 동학교단의 집결 지시에 따라 장내리로 가기 위해 중간 집회로 보인다. 장내리에는 사방 1백여 보와 높이 반장으로 돌성을 쌓았다. 보은 관아는 이 돌성을 쌓은 사실 것을 주목하고 탐지 즉시 감영과 병영에 보고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주목하였다. 수많은 동학도가 모인 사실과 함께 방어시설인 돌성에서 병란을 연상해서 우려한 것이다.

장내리 돌성과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깃발들을 만들어 세웠다. 큰 깃발은 이 집회의 대의를 보여주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는 글자를 썼다. 그리고 방위를 의미하는 오색기를 세우고 각 포를 나타내는 깃발 21개를 내걸었다.³²⁾ 그밖에 접 단위로 내건 작은 깃발은 수를 세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각 대접주 이하의 교도들과 많은 수가 같이 온 점을 포점을 나타내는 깃발이었다.

보은군수 이중익은 3월 22일 장내리로 가서 해산을 종용할 때 동학도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척왜양과 함께 강력히 “방백 수령들이 탐학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탐관오리를 내몰지 않으면 언제 국태민안(國泰民安)하겠는가”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양호선무사 어윤중을 만날 때 “무고한 창생들로 하여금 모두 도탄에 들어가게 하니 목숨 귀하기는 같은데 어찌 이렇게 잔인합니까?” 하였다.

장내리에 집결한 동학도들이 양호선무사 어윤중에게 전달한 주장에는 집권세력인 민씨들을 축출하라고 요구한 항목이 들어있다.³³⁾ 사회 불만사항인 외국 옷감의 국내유통을 막고, 외국과 통상조약 체결 후 서양옷감의 수입을 금지하며, 호포제도를 혁파하라는 항목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권 문제까지 제기한 것이었다.

부패한 민씨로 거론된 고위관리가 민영준(閔泳駿), 민영환(閔泳煥), 고영근(高永根) 등이었다. 전봉준은 이들이 내직(內職)으로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해서 못사람의 입으로 퍼져서 그 탐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보은집회의 해산을 책임지고 파견된 어윤중은 그가 파악한 동학과 집회 등에 관해 장계에서 밝히고 있다. 동학당은 양이(攘夷)를 핑계대로 반란을 꿈꾸는 무리였다.³⁴⁾ 처음에는 부적과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으나 마침내 한 나라의 불평객들을 모았다고 했다. 어윤중은 동학에 들어온 사람들을 열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① 뜻을 얻지 못한 불평자 ② 백성을 위해 탐욕스러운 관리를

29) 전라감사 김문현의 軍司馬 崔永年이 기록한 「東徒始萌辨」.

30) 원평 일대에서 동학농민군 자료를 수집해왔던 최순식(1933~2008) 선생에게 들은 증언.

31) 신영우, 「『聚語』의 사료가치와 장내리집회 분석」, 『동학학보』 17권 2호, 2013.

32) 『聚語』.

33) 『栗山日記』 人, 癸巳 四月十七日. 충주 유생 金永相이 충주까지 전해진 동학도들의 요구사항을 “① 斥倭洋事 ② 閔氏逐出事 ③ 戶布革罷事 ④ 當五錢革罷事 ⑤ 各邑稅米精持事 ⑥ 着木綿不通外國物色事”라고 기록하고 있다.

34) 『聚語』 「狀啓草」 癸巳三月二十三日.

제거하려는 사람 ③ 오랑캐가 우리의 이권을 빼앗는 것을 통분히 여기는 사람 ④ 관리의 침학에 호소할 길 없는 사람 ⑤ 경향의 무단과 위협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 ⑥ 경외(京外)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 ⑦ 영읍(營邑)의 관속으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 ⑧ 농민과 상인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 ⑨ 풍문을 듣고 들어와 즐거워하는 사람 ⑩ 부채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³⁵⁾

장내리집회 참석자들은 적어도 2만 3천명 이상이었다. 보은 관아의 향리들이 그 수와 행선지를 조사해서 보고하였는데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많았다. 포접 단위로 함께 깃발을 들고 온 사람들은 깃발과 인원수가 조사되었다. 처음으로 정해준 대접주 조직인 포명과 전라도의 대접주로 전해지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全州包大接主 南啓天, 金溝包大接主 金德明, 茂長包大接主 孫華中, 扶安包大接主 金洛喆, 泰仁包大接主 金箕範(金開南), 詩山包大接主 金洛三, 扶風包大接主 金錫允, 鳳城包大接主 金邦瑞, 沃溝包大接主 張景化, 完山包大接主 徐永道, 高山包大接主 朴致京, 長興包大接主 李邦彦.³⁶⁾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포와 인물이 적지 않지만, 이 명단만 보아도 전주를 비롯해서 전라도 북부 일대의 군현에 커다란 동학 세력이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에는 충청도 영동의 동학 조직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 있었다.

이웃 군현 장수에서 장내리집회에 참여한 기록은 두드러지게 나온다. ‘장수(長水)의 황병원(黃丙元) 등 130여 명’이 도착하면서 세 개의 깃발을 세웠다고 한 것이다. “한곳에는 호수부의(湖水赴義)라고 글을 쓰고, 한곳에는 호장대의(湖長大義)라고 쓰고, 다른 한곳에는 호남수의(湖南水義)”라고 쓴 깃발이다.³⁷⁾ 호남과 장수를 깃발에 써서 어디에서 온 동학도인지 명확히 했다.³⁸⁾

장수는 북으로는 무주, 서로는 용담과 진안, 남으로는 남원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동쪽 건너로는 경상도 안의와 거창이 인접하였다. 진안과 용담의 동학도들도 장내리집회에 참여했을 것이지만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지는 않다. 대접주의 포를 나타내는 깃발에 용의(龍義)라고 쓴 것이다.³⁹⁾ 옥천과 무주 포의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용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내리집회를 주도한 동학 교단의 고위지도자는 전라도에서 온 동학도들의 활동이 교단 방침과 다르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호선무사 어윤중에게 다음과 같이 밀고하는 서병학의 말이 나온다.

“호남에서 모인 무리들은 겉으로 보면 비록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문을 만들어 걸어놓은 것은 모두 그들이 한 것이고, 형편이 매우 다르니, 원하건대 공개서는 자세하게 살펴 처리하고 우리 무리와 혼동하지 말고 옥석을 구별하십시오.”⁴⁰⁾

35) 『聚語』宣撫使 再次狀啓.

36) 천도교 상주선도사였던 表暎三(1925~2008) 선생이 정리한 포명과 대접주 이름에서 인용.

37) 『聚語』「狀啓草」癸巳三月三十日.

38) 『聚語』「宣撫使 再次狀啓」. 4월에 들어와서 해산할 때 장수접(長水接)은 230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초 3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돌아간 사람은 전라도에는 長水接이 230여 명, 靈巖接이 40여 명, 羅州接이 70여 명, 務安接이 80여 명, 順天接이 50여 명이다.”

39) 善義, 尙功, 淸義, 水義, 廣義, 洪義, 靑義, 光義, 慶義, 竹慶, 振義, 沃義, 茂慶, 龍義, 楊義, 黃豐, 金義, 忠岩, 江慶包 등이다. 대접주의 포가 지명을 앞세워 이름을 정한 것을 보면 龍義는 용담을 포함하여 龍仁和 龍宮 중의 하나가 아닐지 검토해 볼 수 있다.

40) 『聚語』「宣撫使 再次狀啓」. 이를 어윤중에게 알린 사람이 서장옥과 함께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했던 서

서병학은 호남의 동학도들이 ‘종류가 다르다’고 했다. 보은 관문에 통문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것 등은 ‘호남에서 모인 무리들’이 한 일이고,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서 포교의 공인을 받자는 교단에서 행하는 일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

장내리에는 전국에서 동학도들이 집결했다. 『취어』에 기재된 지명을 보면 여러 권역을 찾을 수 있다.⁴¹⁾ 먼저 충청도 보은 영동 황간 옥천 청산 문의는 대도소가 위치하고 교주 최시형이 주재하던 권역이다. 또 공주 진잠 연산 비인 권역과 청주 진천 목천 청안 권역, 그리고 천안 직산 덕산 태안 권역과 충주 일대⁴²⁾ 권역이 있다.

경상도는 충청도와 가까운 상주 김산 지례 성주 선산 인동 권역과 안동 일대 권역, 그리고 진주와 하동 권역이 기록되었다. 강원도는 원주 권역만 나온다. 경기도는 수원 안산 광주 용인 권역과 여주 이천 죽산 안성 권역, 그리고 서울 인근의 송파와 양주도 보인다.

이 자료에 나온 군현에서만 장내리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한 대접주의 예하에서 활동하는 동학도는 한 군현을 넘어서 여러 군현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함께 의미하는 이름인 충경포(忠慶包)가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군현 이름만 가지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전라도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전라도는 먼저 전주 태인 권역에서 참가한 것이 보인다. 다음으로 남원 순창 권역과 나주 함평 무안 영암 권역에서 참가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순천 권역과 함께 장수 권역이 있다.

전라도에서 세력이 컸던 대접주들인 김덕명의 금구포와 손화중의 무장포, 그리고 김낙철의 부안포와 이방언의 장흥포 등은 이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당시 보은 향리가 조사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⁴³⁾ 순천은 광양 하동 등지와 한 권역을 이루고 있고, 영암은 장흥 강진 보성과 한 권역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장수는 진안과 용담 그리고 임실과 동학도들의 인맥이 연결되는 한 권역으로 보인다.⁴⁴⁾

『취어』에서 말하는 ‘종류가 다른 호남에서 모인 무리들’은 전라도의 각 포에 소속한 동학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일까? 갑오년의 2차봉기를 보면, 동학 교단의 지침을 준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지도자와 조직이 있었다. 이른바 남접과 북접으로 부르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전봉준은 남북의 구별을 단순하게 설명했다. “호(湖) 이남(以南)은 남접(南接)이라 칭하고 호중(湖中)은 북접(北接)이라 칭”⁴⁵⁾한다면서 호남과 충청의 지역으로 구별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다. 동학교단의 지침을 따르던 전라도 군현의 북접 계통은 1차봉기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을 모르지 않는 전봉준은 전라도 보다 충청도에 북접 계통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 충청도뿐 아니라 경상도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와 황해도 거의 전역이 통문과 기포령 등으로 전했던 동학 교단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

병학이었다. “湖南聚黨 泛■則雖同 種類不同 發文揭榜 皆其所爲 情形極殊常 願公詳察勘斷 勿以此黨混之 俾有玉石之別焉”

41) 보은 향리가 파악한 이 지명은 충청도 지역만 비교적 자세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기록된 지명을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2) 제천, 청풍, 단양, 연풍, 괴산.

43) 당시 잘못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무산(茂山)은 무주(茂朱)나 무장(茂長) 중 하나였을 것이다.

44) 보은 장내리는 금강 물줄기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무주와 금산으로 이어져서 갈 수 있다. 충청도 황간으로 들어서면 영동과 청산을 거쳐 바로 장내리에 도착하는 것이다.

45) 『全璚準供草』再招問目.

잘 알려진 바처럼, 전라도에도 부안의 김낙철과 같이 남접에 호응하지 않은 대접주도 있었다. 동학 교주 최시형은 김낙철이 동생을 통해 전라도 사정을 전해오자 속내를 알렸다.⁴⁶⁾ 전봉준이 “속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의 사형(舍兄, 김낙철)과 상의하여 절대 상관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낙철은 교단이 기포령을 내린 이후 봉기에 가세하였다.

부안의 김낙철 뿐만이 아니었다. 최시형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동학도들이 있었다. 갑오년 11월 중순에 동학 교주 최시형이 피신해 있던 곳이 임실이다. 『천도교서』의 기록은 그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⁴⁷⁾

十三日에 神師 | 湖南으로 行하실새 任實郡 李炳春家에서 九日을 留宿하시다가 更히 同郡 烏項里 趙錫然家에로 하야 留連하시더니 一日은 神師 | 曰 吾 | 異機를 見하였노니 道人을 還하야 葛潭市에 往見하라 하시다 是時에 孫秉熙 | 果然 當途하거늘 迎接而歸하야 神師所에 拜謁케 되니 時는 十一月 十九日이러라

임실은 동학 교단의 지침을 따르는 오래된 동학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지만 은신처로 선택한 곳은 새목터 조석휴(趙錫休)의 집이었다. 1894년 11월은 충청도와 전라도 여러 지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추적군이 동학 교주를 뒤쫓고 있는 때였다. 가장 위급한 시기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데, 그곳이 임실의 새목터였던 것이다.

임실에 동학이 처음 들어온 과정은 『천도교 임실교사』⁴⁸⁾ 기록으로 알 수 있다. 1874년 3월 최시형이 새목터에 찾아와 허선(許善)⁴⁹⁾의 집에서 머물며 포교를 했는데 최봉성, 표웅삼, 김영원 등 여러 사람이 입도하였다.⁵⁰⁾ 그 다음에 구고천(九臯川)이 흘러가는 큰 마을인 갈담(葛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두 지역은 임실뿐 아니라 전라도 서부 일대의 동학 전파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새목터는 조항치(鳥項峙) 마을으로서 현재는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이다. 조항리와 함께 입석리, 주치리를 합해서 옥석리라고 하였다. 옥석리 본 마을에서 골짜기를 내다보면 산쪽 비탈밭 왼쪽 중간에 최시형이 머물러 있던 허선의 집이 있었다. 지금은 집자리만 남아있는데 이곳이 전라도 서부 일대의 동학 근거지였다. 진안을 비롯해 이 일대의 동학 지도자들은 최시형을 통해 입도한 사람들이었고, 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전라도 동학지도자들이 1893년 원평집회를 거치며 서장옥 전봉준 김덕명 등의 노선을 따르고 있을 때에도 전라도 서부 군현에 북접 계통이 함께 활동했던 긴밀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1894년 가을 전면 재봉기에 들어간 후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때도 그 세력도 병존하고 있었다.⁵¹⁾

46) 『金洛喆歷史』.

47) 『天道敎書』第二編 海月神師.

48) 『天道敎 任實敎史』는 崔東安과 金正甲 등이 1973년과 1980년에 발간하였다.

49) 1914년 임실의 5대 교구장이 되는 허선은 갑오년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봉기를 주도한 남접 지도자들은 거의 희생되었다(『任實東學史』, 255쪽).

50) 이진영, 「全羅道 任實縣의 東學과 東學農民戰爭」, 『全北史學』 19-20합집, 1997.

51)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2月 14日. “東學黨의 兩派 : 東學黨には北接、南接の二派あり北接は崔時亨を首領とし南接は徐章玉を首領とす崔時亨は法軒と號し元來東學黨敎義の大首魁なり東學黨の辭令書様のものには多く北接法軒と署名しあり崔は既に七十有餘の老人にして東學敎義を起してより已に三十餘年に及ぶと云ふ徐章玉は其高弟なり又多くの弟子を有す徐章玉の弊政に激して亂を作さんとするや法軒時機尙早きを説き其輕舉暴動を戒めたり是より意見衝突して遂に二派となり一を北接と云ひ一を南接と名づくるに至る全羅道は南接派多く全琫準、金化南等當時の賊魁多くは皆徐章玉の部下なり而して此兩首領は山中に隱遁して敢て出でず特に法軒の如きは最初より戰鬥に與りしことなしと云ふ”

갑오년을 40년 지난 후인 1935년에 권병덕이 펴낸 저술 『甲午東學亂』에 동학교단 또는 최시형의 지도를 따르다가 2차봉기에 참여한 전라도의 동학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湖南에도 全琫準에게 附從치 아니한 東學黨이 또한 이러나니 金洛喆, 金洛鳳은 扶安에서 吳景道는 益山에서 高德三은 咸悅에서 劉源述은 臨陂에서 金淑汝는 長水에서 趙徹泰는 金堤에서 宋泰燮은 金溝에서 金公光은 萬頃에서 崔鸞仙, 金甲東은 勵山에서 朴準寬, 李根尙은 高山에서 趙在璧은 珍山에서 朴能哲은 錦山에서 徐永道, 朴相淳은 全州에서 李炳春은 任實에서 李奎淳, 張南善은 南原에서 姜宗實, 房鎭敎는 淳昌에서 李仁煥은 長興에서 柳亨魯는 昌平에서 奇宇善, 朴振東은 長城에서 文章烈은 稜州에서 朴成東은 光州에서 文章衡은 寶城에서 全有昌, 吳仲文은 羅州에서 梁彬, 申攄은 靈光에서 林奉春은 求禮에서 金道一은 海南에서 趙錫夏는 谷城에서 吳正運은 靈光에서 宋年燮은 興陽에서 朴洛陽은 順天에서 이러나니 그 數들 計算치 못하였다.”

이 인명과 지명이 모두 맞는지 진위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라도 북동부 진산 금산 장수 임실에서도 북접 계통이 있었던 상황은 알 수 있다. 진안과 용담의 동학지도자들이 가졌던 방침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3. 1894년 동학농민군 1차봉기와 남원 일대의 사정

1894년 진안의 상황 전개를 전해주는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서 당시의 사정을 재구성하는 사례 연구는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방증자료를 활용하면 대체적인 모습을 추정할 수는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4단계로 발전되어 갔다.¹⁾ 제1단계는 고부농민항쟁 시기이다. 고부에서 농민들이 관아를 습격한 1894년 1월 11일(양력 2월 17일)경부터 3월 3일(양력 4월 8일) 새군수 박원명(朴源明)이 설득해서 해산을 하였다. 제2단계는 제1차봉기이다. 3월 20일(양력 4월 25일) 무장에서 전봉준과 함께 손화중 김개남 대접주가 주도하여 기포한 때부터 5월 7일(양력 6월 10일) 전주화약에 이르는 시기이다. 제3단계는 집강소시기이다. 청군과 일본군의 침략으로 농민군이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한 5월 8일(양력 6월 11일)부터 9월 12일(양력 10월 10일)까지 각 군현에 민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4단계는 제2차봉기이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재봉기한 9월 중순부터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민보군에 패배한 1894년 말까지이다.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은 가혹한 조세수탈로 벌어진 사건으로 고종대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항쟁과 같은 형태로 벌어졌다. 고부의 항쟁에서는 새로운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동학의 교조신원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평집회를 이끌던 주요 인물인 전봉준이 지도자로 추대된 것이다. 고부에서 발견한 사발통문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봉기군이 고부 관아에서 무기를 빼앗아 전주 감영과 서울까지 올라가는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다.

다음으로, 무장기포는 여러 군현에서 모인 사람들이 벌인 사건이었다. 무장현감은 ‘며칠 사이에 밤낮으로 사방에서 물러와 천여 명’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6,700명으로 늘어난 동학농민군은 3월 23일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포가 중심으로서 고창 무장 홍덕 정읍 태인 금구 김제에서 왔다고 하였다.’⁵²⁾ 부안현감은 백산집회 직후 동학농민군이 큰 깃발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글자를 썼고, “작은 깃발에는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홍덕, 고창 등의 읍호를 썼다.”⁵³⁾고 하였다. 여기에 진안과 용담 읍호는 나오지 않는다.⁵⁴⁾

52) 吳知泳, 『東學史』, 영창서관, 1940, 111쪽.



〈지도 1〉 조선후기 전라도 군현

무장기포에 참여해서 고부 관아를 점거하고, 황토현전투를 벌였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중서부 군현에서 주로 모인 동학도와 ‘원민’이었다. 1차봉기 지도자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의 영향이 군현을 넘어서는 봉기를 이끌었다. 진안과 용담 그리고 무주와 장수의 동학 계통은 이들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용담의 사정은 진안과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금산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용담에서 온 사람들이 가세했다는 '동학 조직이 금산과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산의 동학 조직에 영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는 조재벽(趙在壁)이었고, 조재벽의 조직은 용담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금산에서는 고부보다 이른 시기인 3월 초에 봉기가 시작되었다.⁵⁵⁾ 진산의 동학농민군이 금산 읍내를 들이친 것이다.⁵⁶⁾ 조재벽은 1887년에 황간(黃澗)에서 동학에 입도한 후 옥천과 영동 그리고 청산 등지에서 포교를 해서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890년경 금산을 비롯해서 진산, 고산, 용담지역으로 포교지역을 넓혀갔다. 1892년에는 삼례집회에서 유력한 동학의 지도자로 등장하였고 1893년 2월 광화문 복합상소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였다.

1893년 서장옥은 좌포도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그래서 1894년 봄 1차봉기를 직접 지도할 수 없었다. 서장옥의 영향을 받은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최시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봉기를 해서 기포(起包)와 좌포(坐包), 또는 남접과 북접⁵⁷⁾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조재벽은 충청도 동남부 옥천,

53) 『隨錄』, 1894년 1894년 4월 초5일.

54) 일본공사관에서 조사한 4월 19일(양력 5월 23일) 보고.

55) 『錦山被禍錄』, “本郡東徒之藁 始自三月初 而祇商頭目金致洪 任漢錫 士人斗斗燮 并力防守 僅免慘酷之禍矣”; 『梧下記聞』首筆 3月, “錦山郡報 今十二日 東徒數千人 持小仗着白巾 聚于郡底燒毀吏家”.

56) 『錦山郡誌』, “3월 8일에 무장한 동학군이 濟原驛에서 회합하여 李也勉을 선봉장으로 5천여 명이 죽창과 농기를 들고 대거 금산읍에 들어와 관아를 습격하여 문서와 각종 기물을 불사르고 胥吏들의 가옥을 파괴했다.”; 『梧下記聞』, “금 12일에 동학도 수천 명이 몽둥이로 무장, 흰 수건을 두르고 읍으로 몰려와 관리들의 집을 불살랐다.”

영동, 청산, 황간과 전라도 북동부 즉 금산, 진산, 고산, 용담 일대의 동학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의 1차봉기 상황은 임란 이후 전라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회 격변사태였다. 고부를 비롯해서 여러 군현의 관아에 동학농민군이 들어가서 무기와 세곡이 탈취되었다.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가 파악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⁵⁸⁾

“지난 날 이래 전라도 및 충청도에서 봉기한 난민은 그 후 차차 세력이 치열해져서 지방 병정만으로는 진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더 심하게 창궐하여 관리를 몰아내고 성읍을 전멸시키는 등 잡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본관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난민이 점거했거나 또는 횡행했던 시읍은 전라도에서는 고부·태인·부안·금구·정읍·고창·무장·나주·함평·무안·영광 등의 각 읍, 충청도에서는 회덕·진잠·청산·보은·옥천·문의 등의 각 읍이었던 바, 전라·충청 양 도의 거의 3분의 1에 걸쳐 있어 이 나라로서는 실로 용이하지 않은 변란입니다.”

3월 기포부터 5월에 이르는 시기에 정부에 올린 전라 감사의 전보 내용은 생생한 사정을 전해 주고 있다.

“동학도 수만 명이 각처를 종횡하며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병기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취산(聚散)이 무쌍하여 그 세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각 읍의 간헐한 소리(小吏)와 경향 각지에서 법을 어긴 망명자들이 그들의 도당에 들어와 제각기 긴 창과 큰 칼, 조총과 화포 등을 소지하고 있는데, 누런 깃발을 새우고 누런 두건을 두르며 누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관군은 그들의 예봉을 당해내지 못하고 각처에서 봉변을 당한 명가와 각 읍에서 쫓겨난 수령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4월 1일. 지금 정부가 받아 본 태인의 보고에는, “1만 명에 가까운 동학도들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읍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의 뜻은 전주로 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태인의 공형문장에는, “어제 그 일당들은 동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아(內衙)로 들어와서 창을 휘두르고 꾸짖으며 병기를 탈취해 가고 또 본 수령을 동헌으로 나오기를 청하여 인장을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감이 그들을 끊임없이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화를 내며 창을 휘둘렀습니다.”⁵⁹⁾

동학농민군은 무기를 각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하였다. 많은 사람이 일시에 관아에 들어가서 무기고를 털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동학농민군 합세하는 사람도 급속히 늘어났고, 이들은 즉각 관군과 싸울 대비를 하였다.

마침내 동학농민군이 감영에서 보낸 영군을 황토현에서 물리쳤고, 경군 장위병도 장성에서 패배하였다. 더 나아가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성에 동학농민군이 들어갔고, 완산을 둘러싼 공방전도 벌어졌다. 이 시기에 진안과 용담에서 1차봉기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 조직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의 황토현전투와 장성전투 승리, 그리고 전주성 점령 사건은 전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사건은 즉각 삼남을 물론 전국 각지에 퍼져나갔다. 동학도들은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포교하였고, 많은 농민들이 동학에 들어가서 그 세력이 급속히 늘어났다.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 전라도 각 군현에서 지방관아는 거의 무력해졌다. 동학농민군이 선정한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録』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1) [東學黨 騷亂原因 調査結果 報告書 送付의 件].

5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件 二 (1) 全羅忠清兩道民亂의件

5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 一.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件 一 > (3) 完伯電報

집강이 향촌사회의 오랜 문제를 척결하는 중심이 되었다. 민정을 관장하는 집강제도는 새 감사 김학진(金鶴鎭)의 권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라도뿐 아니라 충청도에도 설치된 사례가 나온다. 충청 감사가 구상한 집강은 불법을 금지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위력으로 과거의 폐단을 제거하거나 동학농민군을 위한 무기와 식량 등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다.⁶⁰⁾

“무리를 모아서 소요를 일으킨 일은 집강을 차정하여 금하도록 하였다. 지금 영동에서 보낸 보고를 보니, 1,000여 명의 도당들이 인가에 갑자기 들어가서, 사람을 때리고 재산을 부수고, 돈과 재물을 빼앗으며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일정치 않다고 하였다. 진실로 너희들이 염두에 두어 금지하였으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전라도 일대의 사정은 더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김개남이 주재했던 남원은 더 치열했다. 전주성에서 물러난 김개남은 남원에 들어간 이후 그가 지휘했던 동학농민군을 해산하지 않았다. 그 사정을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그리고 전주 유생 정석모의 『갑오약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호남적(湖南賊) 김기범(金箕範)이 남원을 점령하였다. 그는 전봉준과 2대로 나누어, 전봉준은 전주에서 김학진을 인질로 잡고 일도를 호령하며 형세를 보아 가면서 진퇴계획을 짰다. 김기범은 동학란이 일어날 때 남원으로 들어가 그곳의 풍부한 농산물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였다. ---- 그는 격문을 먼저 보낸 후 들어왔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은 감히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다.”⁶¹⁾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우도를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웅거하면서 전라좌도를 통할하였다.”⁶²⁾

이러한 기록은 서울과 충청도에서 벌어진 커다란 사건들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청일 간의 전쟁이 전국에 전해져서 민심이 요동을 쳤다.

김개남은 남원에서 적극 세력을 확장하였다. 전라도 동북부 군현들인 순창·용담·금산·장수 등지의 동학 조직을 장악하였고,⁶³⁾ 도의 경계를 넘어 경상도 함양과 안의까지 세력권을 확대하려고 하였다.⁶⁴⁾

남원에서 동학농민군의 이끌던 사람은 김개남이 조직했던 태인포의 인물들이었다.⁶⁵⁾ 이들은 관료나 양반유생들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다.⁶⁶⁾

“적괴 김개남(金開南)이 남원에 들어갔는데, 잔악한 행동이 특히 심하였으며 민간의 총과 말을 찾아내었다. 먼저 들어간 자가 이미 탈취하여 떠났는데 뒤에 온 자가 또 수색하자 이미 빼앗겼다고 말

을 했지만, 도리어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여겨 온갖 형벌과 욕을 하였다. 총과 말을 돈으로 대신 추심하여 빼앗아가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

김개남이 전주성에서 나와 남원에 들어가는 날은 6월 25일이었다.⁶⁷⁾ 이날은 서울에서 6월 21일 경복궁이 일본군 혼성제9여단의 기습을 받아 점거당한지 4일 후였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급박한 소식이 전국에 전해졌다. 김개남의 동학농민군은 갑자기 거칠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그리고 전주 유생 정석모의 『갑오약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호남적(湖南賊) 김기범(金箕範)이 남원을 점령하였다. 그는 전봉준과 2대로 나누어, 전봉준은 전주에서 김학진을 인질로 잡고 일도를 호령하며 형세를 보아 가면서 진퇴계획을 짰다. 김기범은 동학란이 일어날 때 남원으로 들어가 그곳의 풍부한 농산물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였다. ---- 그는 격문을 먼저 보낸 후 들어왔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은 감히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다.”⁶⁸⁾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 원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우도를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웅거하면서 전라좌도를 통할하였다.”⁶⁹⁾

김개남이 남원에 거점을 정한 직후부터 적극 세력을 확장해서 거느린 세력 규모가 매우 컸다. 60여 일 동안 결집한 세력이 적어도 5~6만에서 무려 7만 명이 되는 막대한 세력이라고 하였다. 전라좌도는 동북부 순창·용담·금산·장수 등지인데 진안과 용담의 동학 조직도 이 시기에 김개남의 예하에 장악되는 것으로 보인다.⁷⁰⁾

가을에는 도의 경계를 넘어 경상도 함양과 안의까지 세력권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정도였다.⁷¹⁾ 안의에서는 현감 조원식이 민보군을 결성하고 반격을 해서 후퇴하기도 했지만 도의 경계를 넘어 세력 확대를 시도할 만큼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민간에서 결성한 무장세력으로 무기가 화승총 일부와 창칼을 지녔을 뿐이고,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았다. 그러한 약점은 곧 드러났다. 운봉에서 박봉양(朴鳳陽)이 민보군을 만들고 방어를 하자 이를 압도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운봉과 남원의 경계인 방아치(方峨峙)에서 민보군에게 반격을 받아 밀려나고 말았다.

전라도 일대가 동학농민군의 장악 하에 들어가서 집강소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모습도 적지 않았다. 무장의 대접주 손화중은 그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한다.⁷²⁾

“우리가 봉기한 지 이미 반 년이 지나갔다. 비록 호남지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는 하나, 지식인 중에 조금이라도 덕망이 있는 사람은 추종하지 않았고 재물을 가진 사람과 선비들 또한 추종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추종하여 접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어리석고 천하여 남에게 해를 입

60) 『錦藩集略』 別甘, 永同執綱孫仁澤等.

61) 『梅泉野錄』 高宗三十一年甲午 ⑥ 2. 金箕範의 南原 점령.(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기록에 개남이란 호를 쓰는 이야기가 나온다. “金箕範 자신의 말에 의하면, 꿈에 어떤 神人이 그의 손바닥에다가 「開南」이란 두 글자를 써 주어 자호를 개남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그를 「介南」이라고 한 것은 발음이 와전된 것이다.”

62) 『甲午略歷』.

63) 이진영,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집, ‘남원통치와 그 성격’, 1995.

64) 『梧下記聞』 2필.

65) 『梧下記聞』 2필. 이진영은 태인과 금구 출신 지도부가 김개남 예하에서 주요 역할을 한 사실을 위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66) 『嶺上日記』 6월 25일.

67) 『嶺上日記』 6월 25일. 이날은 양력 7월 27일에 해당한다.

68) 『梅泉野錄』 高宗三十一年甲午 ⑥ 2. 金箕範의 南原 점령.(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 기록에 개남이란 호를 쓰는 이야기가 나온다. “金箕範 자신의 말에 의하면, 꿈에 어떤 神人이 그의 손바닥에다가 「開南」이란 두 글자를 써 주어 자호를 개남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그를 「介南」이라고 한 것은 발음이 와전된 것이다.”

69) 『갑오약력』.

70) 이진영,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집, 3) 남원통치와 그 성격, 1995.

71) 『梧下記聞』 2필.

72) 『梧下記聞』 2필.

히거나 빼앗고 흠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일 뿐이다.”

남원에서 활동한 김개남 휘하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여러 군현에서 합세한 세력이었다. 김개남 포의 직계가 태인과 금구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남원을 비롯해 좌도 여러 군현에서 집결시킨 사람들이 많았다. 진안과 용담의 동학도와 함께 신입도인 또는 원민들도 동학농민군에 들어가고, 남원에서 활동했을 것이다.⁷³⁾ 이들은 김개남의 결정에 따라 해산하지 않고 남원 일대에서 재봉기에 대비하였다.

4. 동학농민군의 2차봉기와 진안의 사정

김개남은 동학농민군 지도부 가운데 재봉기를 적극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산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봉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⁷⁴⁾ 이런 계획을 전봉준이 반대하였다.

“(8월 25일) 봉준은 개남이 남원을 점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전주에서 남원으로 달려가 개남에게 ‘지금의 정세를 살펴보면 일본과 청나라가 계속하여 전쟁 중에 있지만 어느 쪽이 승리하든 틀림없이 군대를 옮겨 먼저 우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인원수는 많다는 하나 모두 오합지졸에 불과하므로 쉽게 무너져 우리들이 소망하였던 것을 끝내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귀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편이 더 낫겠다’고 하였지만, 개남은 ‘대중은 한 번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말을 듣지 않았다.”

전봉준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 나면 승리한 쪽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인원수는 많다는 하나 모두 오합지졸에 불과하므로 쉽게 무너져”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봉준은 경군과 싸운 장성과 완산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의 무력을 약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⁷⁵⁾ 전투력의 차이는 명백했다. 경군은 대포 등 신식무기로 무장하였지만 동학농민군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 화승총을 쓰고 전투를 벌이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더구나 청국군과 일본군을 상대하는 전투라면 그 결과는 동학농민군이 “인원수는 많다는 하나 모두 오합지졸에 불과”하므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봉준은 7, 8월 사이에 대궐을 범했다는 소식이 낭자하게 널리 퍼져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⁷⁶⁾ 동학조직은 그 직후 전라도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등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즉, 전봉준이나 김개남 등 대접주들이 결정한 다음에 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에서 반일 의병의 기치를 들고 독자적으로 무장봉기를 시작해서 전개된 일이었다. 하부에서 먼저 봉기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재봉기를 결정한 것이다.

다음은 8월 하순부터 전봉준이 재봉기를 결정할 때까지의 상황을 간략한 일지로 정리한 것이다.

73)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아 상세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새 자료가 발굴되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4) 신영우, 「1894년 남원대도소의 9월봉기론과 김개남군의 해산배경」, 『동학학보』 33호, 2015. 이하 이 논문 참고.

75) 『東徒罪人全琫準初招問目』. “問 長城서 接戰호얏느냐 供 京軍과 接戰호니이다 問 京軍과 接戰호야 孰勝孰敗호얏노 供 我軍이 聚食時의 京軍이 大砲로 射擊 故로 我軍死者四五十名이옵기의 我軍이 一齊이 追逐호니 京軍이 敗走호거늘 大砲二座 如干彈丸 取來호니이다”

76) 「全琫準五次問目」 日領事問

8월 25일 (양 9월 24일)	임실을 거쳐 남원에 김개남군 진입
8월 25일	태봉병참부 부관 다케노우치대위 용궁 부근에서 피살
8월 27일 (양 9월 26일)	남원 집합 격문을 보냄
8월 27일	일본순사 3인이 천안 일대의 동학 정탐 보고
8월 27일	일본 총영사가 동래부사의 동학 비호문제 보고
8월 27일	일본 「시사신문」 태봉병참부 다케노우치 대위 피살 보도
8월 28일 (양 9월 27일)	경상도 예천의 동학농민군 읍내 공격
8월 29일	일본군 문경 석문(石門)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 경상감영 남영병
9월 1일 (양 9월 29일)	김인배 대접주 하동 공격을 위해 기포
9월 4일 (양 10월 2일)	강원도 동학농민군 강릉 점령
9월 5일 (양 10월 3일)	경상도 성주 읍내 동학농민군에게 점거
9월 9일 (양 10월 7일)	경기도 동학농민군 죽산·안성 관아 점령
9월 9일	전라도 금구의 동학농민군 고산 관아 점령
9월 10일 (양 10월 8일)	전봉준 재기병 통문을 발송하고 삼례 대도소 설치

전봉준이 재봉기를 결정한 날은 9월 10일(양 10월 8일)이다. 이때에 와서야 통문을 발해서 삼례에 집결하도록 했다. 김개남의 재봉기 주장을 반대한 후 불과 보름이 지나서 재봉기를 결정한 것이다. 전봉준의 상황판단은 늦었다.

1차봉기를 반대했던 동학 교단은 9월 18일 기포령을 내려 전국의 동학 조직을 봉기시켰다. 이 역시 교단 영향 아래 있던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봉기가 진행된 뒤에 기포령을 내린 것이다.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봉기한 세력은 보은 영동 등지에 집결하였다.

동학 교단의 기포령은 전봉준 등 1차봉기의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았던 전라도의 동학 조직도 총동원시켰다.⁷⁷⁾ 진안 인근의 금산 장수 임실의 조직이 가세한 것이다. 진안과 용담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전봉준은 10월이 되어서야 출진한 이유로 자신이 병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일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겸하여 신곡 즉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다.⁷⁸⁾ 농민들이 추수 직전에 자신들의 논밭이 있는 들을 떠날 수 없었다는 말이었다.

전봉준은 삼례 집결 후 출진을 바로 하지 않았다. 10월 12일 비로소 대군을 이끌고 여산과 강경을 거쳐 북상하였다. 논산에서 동학 교단이 출진시킨 동학농민군이 합류하였다. 통령 손병희가 이끈 세력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이었다.

논산에 합류한 동학농민군의 공주감영 공격은 너무 늦었다. 오히려 10월 16일(양 11월 13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공주성을 점거하겠다는 목표를 미리 알렸다. 방어 병력이 없었던 공주감영은

77) 『甲午東學亂』 “湖南에도 全琫準에게 附從치 아니한 東學黨이 또한 이러나니 金洛喆, 金洛鳳은 扶安에서 吳景道는 益山에서 高德三은 咸悅에서 劉源述은 臨陂에서 金淑汝는 長水에서 趙徹泰는 金堤에서 宋泰燮은 金溝에서 金公光은 萬頃에서 崔鸞仙, 金甲東은 勵山에서 朴準寬, 李根尙은 高山에서 趙在璧은 珍山에서 朴能哲은 錦山에서 徐永道, 朴相淳은 全州에서 李炳春은 任實에서 李奎淳, 張南善은 南原에서 姜宗實, 房鎮敦은 淳昌에서 李仁煥은 長興에서 柳亨魯는 昌平에서 奇宇善, 朴振東은 長城에서 文章烈은 稜州에서 朴成東은 光州에서 文章衡은 寶城에서 全有昌, 吳仲文은 羅州에서 梁彬, 申樸은 靈光에서 林奉春은 求禮에서 金道一은 海南에서 趙錫夏는 谷城에서 吳正運은 靈光에서 宋年燮은 興陽에서 朴洛陽은 順天에서 이러나니 그 數를 計算치 못하였다”

78) 「全琫準五次問目」 日領事問. “問 既曰倡義則 聞宜即行 何待十月고. 供 適有矣病 且許多人衆을 不能一時齊動 兼之新 穀未登 自然至十月이외다.”

화급히 구원 요청을 보내서 경군 병대를 공주로 직행하도록 했다.

동학농민군의 재봉기 이후 파견된 진압군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와 경군 각 병영이 주력이었다. 경군은 통위영·장위영·경리청이 동원되었고, 교도중대와 강화영이 합세하였다. 이들 경군의 지휘권은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의 압력에 의해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에게 넘겨주었다. 조정에서는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고 경군을 동원해서 진압에 나서는 체제를 갖췄지만 군령권은 일본군이 장악한 상태였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는 3대로 나누어 남하시켰고, 공주로 내려온 서로군은 1개중대 병력이었다. 우금치전투를 비롯한 공주공방전은 고지를 점령한 일본군 서로군과 경군으로 구성된 방어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였다.

남원의 김개남 군은 삼례나 논산에서 전봉준이 기포시킨 세력과 합류하지 않았다. 10월에 들어와서 전봉준이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자 비로소 출병을 결정하였다. 김개남은 10월 14일 ‘수만’ 대군을 거느리고 임실을 거쳐 북상해서 13일경에 전주로 들어왔다.

김개남은 여러 날을 전주에 머물러 있었다. 11월 21일(음 10월 24일)에는 예하의 일대 병력을 금산으로 보내서 읍내를 점거하였다. 금산에 들어간 김개남 군은 읍내에 호된 보복행위를 자행하였다. 금산은 충청도와 경상도 3도의 길목이라서 동학농민군과 진압군이 몇 차례 점거를 거듭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수난이 연이어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 김개남 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⁹⁾

김개남 군이 금산을 공격할 때 용담현도 공격하였다. 용담현령 오정선(吳鼎善)은 “동비(東匪)가 봉기하여 먼저 금산과 용담을 습격하자 … 쫓아내려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일단 격퇴하였다”고 했다.⁸⁰⁾ 용담은 김개남 군의 주요 점령 목표가 아니었다. 금산에 들어간 후 진잠을 거쳐 청주로 직행했다.

이때는 행군과 전투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다. 경군과 일본군은 삼남을 목표로 남하하면서 각지의 동학 근거지를 수색하던 때였다. 집결지를 공격해서 해산시키고 동학 근거지를 기습하면서 흩어진 동학농민군을 추적하는 중이었다. 김개남 군은 바로 그 한 가운데로 대군을 움직여서 행군해 들어갔다. 결국 청주에서 일본군 소부대를 만나서 기습을 받고 퇴산할 수밖에 없었다. 도순무영의 지시를 받은 영관 홍운섭이 이끈 경리청 병대가 전라도로 돌아가는 김개남군을 추격하였다.⁸¹⁾ 그러나 경리청 병대가 따라잡지 못했고, 재결집하지 못한 김개남 군은 각 군현으로 흩어졌다. 이들이 지역 방어군 역할을 하였다. 진안과 용담에도 그러한 동학농민군이 남아있었다.

진안 일대는 우금치에서 전라도로 내려와 북상길을 찾아온 손병희의 동학농민군 대군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었다. 태인에서 전봉준 등과 헤어진 손병희 군은 정읍을 거쳐 고부 백산까지 행군해 갔으나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진압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찾아낸 회군길이 장성을 거쳐 임실을 돌아 산줄기 사이를 택해 장수와 무주로 북상해서 충청도 보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 행군길에서 임실로 피신한 교주 최시형과 연락이 되어 함께 만날 수 있었고, 12월 1일부터 북상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 수는 ‘수만 명’ 이상으로 불렸지만 과장이 된 수였고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르는 대군이었다.

손병희가 지휘하는 북접농민군은 북상길에 장수 읍내로 들어갔다. “장수 읍내로 들어간 것은 속

79) 『錦山被禍錄』

8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2) [東學黨 征討略記]

8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査派遣의 件 二 (18) 晋州出張兵 撤收 및 東學徒 彙報.

박 때문이었다. 이미 날은 추워져서 대규모 병대가 산 속에서 오래 견딜 수 없었다. 적지 않은 군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읍내를 점거하고 행렬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⁸²⁾

장수 점거 사실은 즉시 인근 군현에 긴급 사태로 전해졌다. 전라도 군현뿐 아니었다. 전라도 도계를 건너 경상도 안의와 거창에도 전해져서 파문이 커졌다. 안의와 거창은 지방관이 민보군을 결성해서 동학 조직을 제압한 군현이었다. 이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다가 전라도 장수가 함락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이들이 경상도에 올 것을 예상하고 경상감영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이 행군은 전라도를 벗어나기 전에 일본군을 만나지 않았다. 일본군의 계획은 치밀하였다.⁸³⁾

“전주에서 계획한 작전의 목적은 적이 도망쳐서 경상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점차 남서쪽 구석으로 구집(驅集)하는데 있었다. 즉,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삼면에서 추격하여 한 곳에 모으고 또 세 갈래로 나누어 진군하여 한 곳에 모아, 마침내 동비를 나주 부근으로 쫓아 모을 목적이었다. 즉, 동로 분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기슭을 따라 적이 경상도 경계에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진하고, 서로분진대는 그 반대쪽에서 이를 몰고, 본대는 동로와 서로의 두 분진대보다 조금 행군을 늦추어 가게 하여 이를 추격, 이렇게 해서 적을 우수영의 계곡 사이로 한데 모을 방침으로 전진했다.”

일본군 후비보병제19대대의 중로군이 청주와 옥천을 거쳐 금산으로 들어왔다가 연산으로 빠져나간 이후였기 때문에 북상하던 동학농민군은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무주에서 10월부터 무풍면과 안성면에서 활동하던⁸⁴⁾ 민보군이 북상길을 차단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설천과 월전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수가 많은 동학농민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금산에서 연산으로 향하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지휘했다. 금산에서 고산방향으로 행군하면서 시라키 세이타로(白木誠太郎) 중위에게 소규모 일본군 병사와 교도중대로 구성한 지대의 지휘를 맡겨 용담과 진안으로 파견하였다. 서쪽에 있는 은진·여산·익산 부근의 동학농민군이 경상도 고지대인 용담과 금산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지대를 보내서 막는 임무를 준 것이다. 이 지대는 농산에서 500~600명의 동학농민군을 만나서 전투를 벌였다. 퇴각한 동학농민군이 진안으로 향하자 뒤따라갔다.

진안에서 11월 15일(양 12월 11일) 다시 전투를 벌이고, 전무상보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⁵⁾

“鎮安縣附近 戰鬪詳報

“1. 12월 11일 枝隊는 어제 10일 農山邑 전투 후, 적의 패잔병을 포박하고 적도의 퇴각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척후를 여러 방향으로 파견하여 수색케 하였다. 그런데 패퇴한 적도는 모두 鎮安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高山縣으로 전진한다 해도, 진안현에 적도가 모인다면 우리의 배후가 위험한 동시에 枝隊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진안현으로 전진해서 적도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2. 12일 오전 11시 진안현 동쪽 끝에 도달하였다. 적도는 진안현 서북쪽 산 위에 진을 치고 크고 작은 깃발 여러 개를 세웠으며 그 인원수는 500~600명 가량 되었다. 지대를 발견하자 즉시 격렬한

82) 신영우, 「북접농민군의 충청도 귀환과 영동 용산전투」 『동학학보』 24, 2012.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2) 東學黨 征討略記

84) 이진영, 「전라도 무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동학연구』 12집, 2002.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七.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9) 鎮安縣附近 戰鬪詳報.

사격을 시작하였다. 오전 11시 30분 제18대대의 下士 이하 약간 명과 교도중대 3분대를 宮本 少尉에게 지휘시켜 좌익에서 전진케 했다. 이들은 약 600m 앞까지 근접하여 흩어져서 사격을 시작하였다. 오전 11시 40분 다른 2개 소대를 오른쪽에 증파시키고 모든 戰線에서 전진하여 적 앞 400m 되는 곳까지 가서 신속하게 사격했다. 적도가 그 위세에 놀라 총과 깃발을 버리고 퇴각했다.

3. 오후 12시 10분 진안현을 모두 점령하였다.”

5. 맺는 말 - 진안의 동학농민군 참여 인물 조사의 필요

진안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것이지만, 일부만 확인된다. 이들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2003년에 전주역사박물관과 진안문화원이 만든 『전북 진안지역 근현대민족운동사 학술보고서』의 동학농민혁명편에 의해 기초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진안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이사명(李士明)이 알려져 있다. 후손이 신청해서 유족으로 등록이 되었다. 이때 제시한 자료가 『동학사』 『종리원사 부동학사』 『순교약력』 등이다. 진안에 나온 자료가 아니라 남원과 임실의 천도교 조직에서 만든 기록이 주 자료가 되고 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더 찾을 필요가 있다.

1차자료로 활용하는 기록문서를 보완하는 자료가 증언록이다. 직손이나 방손 등 후손과 군민들의 증언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1894년의 인물을 증언만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어렵다. 이미 증손을 넘어서 고손까지 내려와 있고, 한 세기 이전의 인물에 관한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대로 이러 자료를 모아야 한다.

주제발표2.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신순철 원광대 사학과 명예교수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2

신 순 철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목 차 -

1. 머리말
2.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안 동학농민혁명
 - 1) 1894년 1차봉기 시기의 진안
 - 2) 재봉기 이후의 진안군 전투
3.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 1)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 2) 진안 농민군 연구의 연구 과제
 - 3) 진안 기념사업의 과제
4. 결론

1. 머리말

지금까지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전봉준 중심의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 있었던 지역 단위의 전투나 인물에 대한 인식 또한 저조한 편이다. 곧 전봉준의 주력 농민군 외에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대규모 전투를 이어갔던 전라도·충청도·경상도·황해도 지역의 전투나 재봉기 이후 김개남 농민군의 활동은 전봉준 주력과는 별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 전투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는 물론, 전봉준 피체 이후에도 일본군과 관군의 추격 속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각지에서는 대규모 전투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다시 지방 관아를 점령하는 등의 위세로 농민군 활동은 이듬해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894년 말과 이듬해 초까지 계속된 장흥 석대들 전투이다. 이 외에 보은 북실이나 대둔산 향전, 황해도 지역의 산발적인 전투는 1895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동아시아 3국의 세력 판도를 바꾸어 놓은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들이 전라도와 황해도의 감영을 점령할 정도로 전국적인 농민봉기였으며 전국 120여 개 군현의 농민들이 봉기한 한국사상 초유의 대규모 민중봉기였다.

진안군 역시 갑오년 봉기의 중심에 있었다. 현재 진안군의 행정구역은 1894년 당시 진안군과 용담현으로 나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안군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당시 진안과 용담의 동쪽에 있는 금산군과 진산현은 전라도에 속해 있었다.

진안은 인접 지역인 금산, 무주와 함께 충청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역이었다. 때문에 동

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치열한 접전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의 전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역의 전투에 비해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안지역은 김개남이 이끄는 전라좌도 농민군 세력이 청주성 공격을 위해 북진하면서 금산을 거점으로 삼아 약 보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9월 재봉기 이후 이 일대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곳이다. 김개남 농민군은 금산에서 진산, 용담, 진안, 무주군의 전라도 지역으로부터 경상도 지례, 김천, 안의, 거창이나 충청도 연산, 진잠, 회덕까지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따라서 진안 동학농민혁명 전투지는 이와 관련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1894년을 전후한 진안군이나 용담현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상황을 알려주는 문헌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헌의 동학교단 기록과 진압군 기록 내용 가운데 진안이나 용담현의 전투 상황이나 인명이 소략하게나마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심은 2005년 이용엽 선생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선생은 그동안 수집된 구전자료와 문헌기록을 종합하여 ‘진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진안문화원)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바 있다.⁸⁶⁾ 이 발표에서 선생은 진안 동학의 중심세력이었던 전병화, 전익호, 전동필 등 천안전 씨들과 이사명에 주목하여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오정마을’이 갑오년 이전부터 전봉준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문헌자료와 구전을 바탕으로 상조림전투 장소를 특정하고 용담전투와 진안전투의 실상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진안에서 피신해 살았던 전봉준의 큰딸 전옥례에 관한 구전자료도 소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용엽 선생이 제시한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진전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지식정보시스템>⁸⁷⁾에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헌자료를 검색하여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낱자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안 동학농민혁명

1) 1894년 1차봉기 시기의 진안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인물은 오지영의 『동학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892년 12월 보은집회 상황을 설명한 부분에서 최시형이 당시의 전국적인 접 조직을 강화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경상·충청·전라·강원·황해도 등 87개 군현의 접주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안 접주로 오숙여(吳叔如)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인접한 고을 접주로 무주 접주 이응백(李應白), 진산 조경중(趙敬重), 금산 박능철(朴能哲), 임실 이용거(李龍舉) 이병춘(李炳春), 남원 김흥기(金洪基)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⁸⁸⁾

『동학사』에는 1894년 3월 백산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인물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다섯 사람과 전라도 각지에서 많은 동학도들을 인솔하고 온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안지역의 인물로 이사명(李士明), 전화삼(全化三), 김택선(金澤善)과 무주의 이응백 등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용담이나 진산·금산·고산 지역의 인명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고부나 금

구, 임실, 남원 등지의 참여자는 군현별로 13명에서 16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점⁸⁹⁾에서 보면 전라도 동북부 산악지역이라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진안 용담지역과 그 인근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무렵 전라감영은 감영군을 황토현으로 보내면서 비밀리에 각 군현별 민보군의 차출을 독려하여 황토현으로 집결시켰다. 4월 3일 황토현으로 민보군을 보낸 24개 군현 가운데 역시 진안과 용담이 포함되어 있다.⁹⁰⁾

농민군의 봉기가 각 군현으로 확대되고 황토현에서 감영군과 민보군이 농민군에 대패하자 전라감영은 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도내 ‘군현작통법’을 실시하였다. 즉 제주도와 전주를 제외한 전라도 52개 군현을 4군 1통으로 13개 지역으로 작통하여 인근 군현끼리 연합하여 농민봉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안을 중심으로 무주, 금산, 용담 4개 군현이 하나의 통으로 편성되었다.⁹¹⁾ 그러나 이 군현작통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나 성과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그 실효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어 『천도교서』의 9월 재봉기 기록에는 최시형이 손병희에게 각 포를 통솔하게 하고 이때를 전후하여 포를 일으킨 사람이 73읍 31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시 진안은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등 3인이 나온다.⁹²⁾ 아울러 이 기록에는 인접 군현인 무주에 이응백, 고산 박치경(朴致京), 전현문(全顯文), 유종춘(柳宗春), 김택영(金澤永), 김낙언(金洛彦), 최영민(崔永敏), 신현기(申鉉基), 이은재(李殷在), 서인훈(徐仁勳), 진산 조경중(趙敬重), 최사문(崔士文), 최공우(崔公雨), 금산 박능철(朴能哲) 등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기록에 진안사람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광주, 임실로 피신해 다녔다는 전경서(全京瑞)라는 인물이 있다.⁹³⁾ 그리고 농민군 진압공로로 『東學黨征討人錄』에 기록된 문택규(文澤奎) 고종림(高鍾林) 등 민보군도 있었다.⁹⁴⁾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보면 1894년 무렵 진안에서 오숙여,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등이 동학의 지도자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월 무장봉기 이후 백산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담에서는 접주로 기록된 인물은 물론 백산대회 참여자로 기록된 사람은 이름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1894년 봄까지 용담지역의 동학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인접 고을인 금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금산은 제원에서 그해 3월 8일 이야면(李也勉)을 중심으로 한 1천여 명의 농민이 모여 군의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봉기가 있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군수가 빠르게 수용함으로써 일주일만인 3월 14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산군에서는 보부상 김치홍(金致洪)과 임한석(任漢錫)이 주축이 된 민보군이 조직되었다.⁹⁵⁾

89) 위의 책, 초고본 3, 격문.

90) 吳弘默, 『固城府叢瑣錄』 1894년 4월 29일조.

91) 「全羅道各邑 每四邑作統 規模關辭條約 別錄成冊」.

92)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93) 「廉記」 경자(1900)10월 조에 ‘임실군 하동면(下東面) 계월리(桂月里)에 사는 전경서는 본래 진안(鎭安)사람으로 갑오년 동학의 거괴이고, 어지럽게 작난질 한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 난리가 가라앉은 뒤에 본읍(광주)에서 지낼 수가 없어 임실 하동면 계월리로 이사하였다. 그 죄가 매우 크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94) 『東學黨征討人錄』 내용에 ‘重出 出身 文澤奎 龍潭人 高鍾林 龍潭義旅’이라는 내용이 있다.

95) 『各陣將卒成冊』, 「雜記」, <錦山被禍爰像別具成冊>(甲午十二月二十九日), 신순철, 「금산 진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 금산문화원, 2008.

86) 이용엽, 「진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진안지역의 근대민족운동 학술보고서』, 진안문화원/전주역사박물관, 2003.

8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마당 (<http://www.e-donghak.or.kr/dirFrameSet.jsp?item=sa>)

88)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3, 보은집회와 경성집회.

4월 1일에는 용담과 인접한 진산현 방축리에서 1천여 명의 농민들이 다시 모였다. 금산 민보군은 바로 진산에 모인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로 농민군 11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부안 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 공격에는 용담현령 오정선도 함께 했고 그 공로로 인해 오정선은 금산군수로 승진 이임하였다고 한다.⁹⁶⁾ 농민군이 부안으로 이동한 후 금산에는 보부상 수백 명이 도훈소(導訓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면 단위까지 진소(陳所)를 두어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⁹⁷⁾

5월 중순에 이르러 농민군과 민보군 사이에는 별다른 충돌 없이 지역사회는 안정을 되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이후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나 이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면서부터 양측 사이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 진영에서 보낸 사통(私通)을 근거로 한 민보군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 ‘맨 처음 임명한 집강은 용담에 사는 김기조(金己祚)였으며 다음 임명자는 본읍(금산)에 사는 조동현(趙東賢)’이라 하였다. 즉 금산에 집강이 임명되고 다시 바뀐 사실을 보여준다. 용담에 사는 김기조가 첫 번째 금산 집강이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집강소 시기 금산은 9월 27일 전 참판 정숙조(鄭翹朝)를 맹주로 하는 양반 사족 중심의 민보군이 결성되었다. 금산의 민보군은 기존의 보부상 조직을 흡수하여 1천여 명 규모의 반농민군으로 확대 개편되어 농민군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⁹⁸⁾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진안군 동학도들은 1892년 무렵 보은집회 때부터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였다. 1894년 3월 무장기포 이후 백산봉기에 참여 함으로써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함께 하였다. 황토현전투와 황룡전투 이후 전주성 점령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안농민군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천도교 관련 기록에 보이는 진안 농민군 지도자는 오숙여,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등이었고 집강소 시기의 용담 출신의 금산 집강 김기조, 그리고 전경서 등 6명과 민보군 문택규 고종립 2명이 있다.

2) 재봉기 이후의 진안군 전투

동학농민군의 9월 재봉기 이후 금산, 진산과 함께 진안과 용담은 농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군의 중심세력은 김개남 부대였다. 따라서 진안전투의 이해를 위해서는 김개남 부대의 이동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개남은 9월 재봉기 과정에서 전봉준과는 별도로 남원에 근거를 두고 전세를 관망하다가 10월 14일 남원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16일에 전주에 도착했으며 이후 고산과 진산을 거쳐 20일경 금산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⁹⁹⁾ 10월 22일부터 김개남을 비롯한 금산·진안·고산·진산 등지의 농민군은 금산 민보군과 전투를 벌였다. 3일간의 전투 끝에 농민군은 10월 24일 금산군을 점령하였다.¹⁰⁰⁾

금산을 점령한 농민군을 정탐한 관군의 보고에 의하면, 농민군은 ‘그 세력을 셋으로 나누어 1대는 용담읍에서 안의현의 육선령(육십령?)을 넘어 해당 현의 군대와 대치하고, 1대는 황간 영동에서 기포하여 장차 김산과 지레로 갈 것이고, 1대는 무주와 무풍에 모여있는데 장차 지레현의 덕산령

96) 『兩湖右先鋒日記』, 갑오11월 12일.

97) 앞의 〈錦山被禍交像別具成冊〉 및 신순철 논문 참조.

98) 위의 〈錦山被禍交像別具成冊〉 및 신순철 논문 참조.

99) 최익현, 『오하기문』 제3필 9월 18일, 10월 14일조(『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제1권).

100) 앞의 〈錦山被禍交像別具成冊〉 및 신순철 논문 참조.

과 부항령을 넘을 것이라 한다.’고 하였다.¹⁰¹⁾

김개남 부대는 금산 점령 이후 금산을 거점으로 하여 사방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쪽으로는 안의와 김산, 지레를 노리면서 용담과 진안을 공격하였다. 11월 8일 용담 공격을 시작하여 이튿날인 9일 용담현을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 대한 용담현령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달(11월) 초 8일에 진안·고산·진산·금산 등지의 각 포(包)의 동도 수만여 명이 북쪽으로부터 침입하여 부대를 마주하고 접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茂朱)의 접주 이응백(李應伯) 삼부자는 그 무리 수천여 명을 이끌고 동으로부터 느닷없이 침입하여 우리 뒤편을 공격하였습니다. 양쪽 길의 적의 형세가 모두 굉장하여 막아낼 수가 없어 초 9일 오시 경에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지척도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가는 곳마다 겁탈하여 온 읍이 잿더미가 되고 온 읍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불에 탄 관아 건물이 44칸이며, 인가는 470호이며, 해를 입은 인명은 17명입니다. 여러 읍이 비류에게 해를 입어 놀라지 않은 이가 없으나, 어찌 이곳 용담보다 심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를 말하자니 진실로 분하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¹⁰²⁾

용담현령의 보고에서 보듯이 농민군의 용담 점령은 농민군의 양동작전으로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아 44칸과 민가 470호가 불에 타고 인명 피해가 17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전투가 매우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듬해 초, 용담현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복구비용을 내려준 사실에도 보더라도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대규모 전투였음을 보여 준다.¹⁰³⁾

농민군의 용담 점령 사실은 인근 고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 안의현감이 11월 11일 경상 감사에게 밀서를 보내 감영의 지원을 요구한 내용에는 농민군이 용담과 장수에 이르러 안의가 위협하니 시급히 군대를 보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¹⁰⁴⁾ 이를 통해 당시 인접 고을의 다급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관군과 일본군을 금산으로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⁵⁾ 관군과 일본군은 청산과 옥전을 거쳐 11월 10일 금산에 도착하여 농민군과의 교전하였다. 관군 교도대장 이진호의 보고에 의하면, 이날 수만의 농민군과 혼전하여 50여 명을 살해하였다고 한다.¹⁰⁶⁾

또한, 11월 14일에는 용담 조림장터에서 농민군 수천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고 생포한 20명 중 서도필 등 6명을 총살하고 나머지는 방면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어 16일, 진안읍에 도착하여 농민군 수천 명과 접전하여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고 한다.¹⁰⁷⁾

이상의 사실에서 보면, 김개남 부대는 10월 24일 금산을 점령하고 사방으로 공략을 시도하던 중 11월 9일 용담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관군과 일본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는 11월 10일 금산에 이어 11월 14일 용담, 11월 16일 진안에서 전투가 벌어진 사실에서 확인된다.

101) 〈지레에 출사한 초관 이완근(李完根)의 수본〉 『별계』 갑오 11월 18일 『봉계』 및 『札移電存案』 갑오 10월 29일(『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7권).

102) 〈용담현령의 보고〉, 『순무선봉진등록』 6, 1894.12.22.

103) 『梧下記問』에 의하면 을미 정월에 정부에서 금산과 용담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공전 1만냥이 지급되고 민가는 호당 20냥, 관아는 1칸당 30냥씩 배정하고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梧下記問』 을미 정월조, 을미 이월조.

104) 〈안의현감 조원식의 첩정〉 갑오 11월 18일 『봉계』, 또는 『札移電存案』 갑오 11월 20일.

105) 의정부 편, 『札移電存案』 음력 1894년 10월 29일.

106) 『순무선봉진등록』 4, 1894.11.22.

107) 『甲午軍政實記』 6권, 『순무선봉진등록』 6, 1894.12.22., 같은 책, 「선봉진첩보」 1894.11.27., 「순무사정보첩」 75, 갑오11월 22일.

11월 8일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이 3일간의 공주전투에서 패전하여 후퇴가 시작된 날이었다. 이로부터 3일 후인 11월 11일 금산에 머물러 있던 김개남은 진잠, 회덕을 차례로 점령하고 13일 청주성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11월 10일, 금산에 온 진압군과 김개남 부대의 주력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김개남의 주력이 금산에서 이진호가 이끄는 관군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밀려서 청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관군과 일본군의 남하를 피해 청주성을 공략하고자 비켜 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1월 16일의 진안전투 이후 11월 말까지 용담이나 진안에서의 전투 사실은 보고된 것이 없다. 그러다가 12월 1일 다시 고산에서 들어 온 민보군의 공격을 받아 진안에서 농민군 수천 명과 접전이 벌어졌다.¹⁰⁸⁾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접주 선윤석(宣允錫)과 접사(接司) 유상원(劉尙源), 교장(敎長) 고윤흥(高允興) 등 30여 명이 살해당하고 퇴각하였다. 이때 소모관 측에게 조총 21자루, 양총(洋銃) 1자루, 탄환 20여 개, 병정 복색의 친자(親字) 혁대 각 몇 건, 장창(長槍) 15간(桿), 환도(環刀) 15자루, 화약 80여 근, 철환 5만여 개, 화승(火繩) 천여 타(朶), 위조 목인(木印) 5개, 도서(圖署) 2개와 쌀 70여 섬도 빼앗기고 말았다.¹⁰⁹⁾

12월 1일 진안전투 이후 각지로 피신한 농민군의 일부는 대둔산 형제바위에 근거를 두고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약 70일간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항전하였다. 이들은 1895년 2월 18일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 기습작전으로 2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최후를 맞이하였다.¹¹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용담과 진안에서는 각각 두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용담에서는 11월 8~9일과 11월 14일, 진안에서는 11월 16일과 12월 1일이었다.

그렇다면 11월 9일 용담현이 농민군에 의해 점령된 이후, 12월 1일까지는 용담과 진안 관아는 농민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의 소모관 전동석의 보고한 내용 가운데, 진안 농민군으로부터 ‘빼앗은 쌀 70여 섬 중 30여 섬은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40여 섬은 진안의 이방(吏房)에게 지급하여 고을의 폐단을 바로잡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에서 볼 때 12월 1일 전투를 계기로 농민군이 관아로부터 철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 재봉기 당시 용담과 진안의 농민군들은 논산에서 집결한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 주력에 합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원에 있던 김개남 부대와 합류하였다. 그 근거는 9월 봉기 이후 진안 농민군 지도자 이사명은 남원에 있었기 때문이다.¹¹¹⁾

이사명은 김개남이 남원을 떠난 10월 14일 이후에도 남원을 지키고 있었다. 남원 농민군은 경상도로 통하는 거점인 운봉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11월 중순 방아치와 관음치 일대에서 박봉양이 이끄는 운봉 민보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이때 남원에 남아 있었던 농민군 지도자는 남원 접주 김흥기, 김우직, 이춘경 등이었으며 태인 금구 임실 지역에서 온 대접주들과 진안의 이사명도 함께 있었다.¹¹²⁾ 결국, 남원성을 장악한 농민군은 11월 28일 운봉 민보군의 공격을 받고 남원성을 내주고 각지로 피신하였다.¹¹³⁾ 이사명은 그 후에 친지의 밀고로 체포되어 12월 9일 오수장터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¹¹⁴⁾

108) <소모관 전동석의 보고>, 『갑오군정실기』 8권 1894.12.10.

109) 위 소모관 전동석의 보고.

110) 신순철,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금산문화원, 2006.

111) 남원총리원, 『남원군동학사』.

112) 위의 『남원군동학사』.

113) 위 같은 자료.

114) 이현도, <구전증언록> (유족신청제출자료).

그러므로 11월 8일 용담현을 점령한 주체는 용담 농민들이 아니라 전라도 각지에서 모인 김개남 중심의 농민군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산피화록>에 금산 일대를 여러 차례 거쳐 간 농민군들을 ‘개남포, 연산포, 공주포, 강포’¹¹⁵⁾라고 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모인 김개남 부대의 농민군들로 보인다.

이 시기 용담·진안전투와 관련된 농민군 지도자 이름은 11월 10일 금산으로부터 용담·진안·고산 전투에서 체포 또는 처형된 서도필(徐道弼)·박만호(朴萬浩)·이만실(李萬實)·조운삼(趙允三)·박치팔(朴治八)·김운일(金允一)·이만학(李晩學)·여관서(呂寬西)·김치서(金致西)·창성도(倉聖道)·임성원(林聖元)·김중이(金仲伊), 12월 1일 진안전투에 나오는 접주 선윤석(宣允錫)과 접사(接司) 유상원(劉尙源), 교장(敎長) 고윤흥(高允興) 등 모두 15명이다.

3.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1)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진안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현장이다. 1894년 새로운 세상을 염원한 전국 각 고을 농민들이 봉기할 때 진안 농민들도 동학도를 중심으로 함께하였다. 6월 이후에는 용담과 진안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농민들에 의한 폐정개혁이 추진되었던 곳이다. 집강소의 폐정개혁은 농민들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권력기관에 참여한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가을 재봉기 과정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농민군들이 용담과 진안군을 장악하였던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11월 이후에는 곳곳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고 전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투에서 입은 농민군의 피해는 관변기록 이상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갑오년, 진안군의 많은 농민군 지도자들과 농민들은 봉건적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일어섰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재봉기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이름 없이 숨진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 진안지역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 각지의 농민군 원혼이 깃든 곳이다. 갑오년 농민군 참여자들은 다행히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신해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고, 또한 참여자의 후손들은 역적의 후예라는 오명을 쓰고 주위의 질시와 냉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정이었다.

백성을 수탈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갑오년 농민들의 숭고한 정신은 진안군에서도 그 기억과 기쁨을 위한 추모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후세들에게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억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진안군민의 자긍심으로 승화시켜 진안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2) 진안 농민군 연구의 연구 과제

진안 동학농민혁명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수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천(朱川), 안천(安川), 정천(程川) 등 주자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명으로 가진 용담현의 사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민군에 의한 관아 점령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다른 군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참혹한 사건이었다.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사

115) 앞의 <금산피화록> 참조.

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안 용담지역의 향교나 사족들의 개인 문집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농민군 이동로와 전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구전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김개남의 활동 무대였던 금산·진산·무주와 남원·임실 지역까지 망라하는 자료수집이 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오정마을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1915년에 작성된 오정마을의 <측량원도>에 의하면 당시 오정리 마을은 대지가 20여 필지이며 논과 밭이 70여 필지이다. 따라서 1915년경 20~30여 호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을 보면 마을 입구 쪽의 길가 우측 267번지(현재는 논)에 전학삼(全學三)의 집이 있고 다음에 이국찬(李局贊, 268번지)의 집이 있다. 전씨 집은 안쪽 290번지(현 297번지의 마당)에 전재칠(全在七)의 집과 더 안으로 전기남(304번지)의 집이 있었다.

<측량원도>의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오독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마을 전체 토지의 주인을 살펴보면, 김 씨, 이 씨, 임(林) 씨, 박 씨, 최 씨, 유(柳) 씨, 윤 씨, 정(鄭) 씨, 태 씨 등이 보인다. 이 가운데 전 씨는 전사원(全士元), 전원길(全元吉), 전기상(全起商), 전기남(全起南), 전기룡(全起龍), 전재삼(全在三), 전성옥(全聲玉) 등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이곳이 전 씨 집성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씨 역시 이국찬(李局贊), 이성찬(李成贊), 이덕주(李德柱), 이재식(李在植), 이기룡(李起龍), 이명칠(李明七), 이순익(李順益) 등으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김 씨는 김찬경(金贊京), 김인명(金仁明) 등이 보인다.¹¹⁶⁾

<측량원도>는 1894년으로부터 20년 후인 1914년경 현황측량과 지주 조사를 통하여 1915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혁명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본군 기록을 보면 오정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진안 오정리에 사는 접주와 접사가 방금 고부를 향하여 떠났다. 접은 수백 명을 이끌고 있었는데 모두 말을 타고 길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질문을 하였더니 접주는 이사명이라고 하였다. 한참 있다가 오정리로 갔다. 이곳은 본래 거괴(巨魁)가 많은 곳으로 불빛이 하늘에까지 솟구쳤다. 일설에는 금산의 민포에서 불을 질렀다고도 하고 거주민들이 불을 질렀다고도 한다.¹¹⁷⁾

오정마을이 농민군 지도자를 다수 배출하였고 오정리가 3일간 불탔다는 이용엽 선생의 구전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오정마을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지도자를 다수 배출한 마을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전병화와 이사명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김택선이나 「전봉준 판결선고서」에 나오는 문계팔(文季八)·전영동(全永東)·이종태(李宗泰) 등도 이 마을 출신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이사명의 자료에 그의 손자인 이현도 선생은 전병화가 서당을 열고 전봉준을 선생으로 초빙하였다¹¹⁸⁾는 것과 이용엽이 이러한 구전자료에 바탕하여 고부봉기 이전부터 전봉준이 서당 훈장을 가장하여 오정마을에서 전병화와 내왕하면서 비밀리에 농민봉기를 사전모의 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 마을이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라고까지 하였다.¹¹⁹⁾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수궁하기 어려우며 좀 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오정리에는 이사명, 전화삼 외에도 더 많은 농민군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마을이 불태워져 3일간이나 연기가 났다는 구전은 문헌자료와 일치한다. 그러나 전화삼과 전병화가 동일 인물인지의 여부와 전익호, 전동필, 전세일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주목해야 할 부문은, 김개남 부대의 남원에서 청주까지의 이동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다.

이용엽 선생의 조사에 의하면 김개남은 남원을 떠나 전주로 가는 길에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에서 양반 사족 최성호(崔成鎬, 芝隱, ?~1894)를 처형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 최제학(崔濟學, 翫齋, 1882~1961)은 1906년 무성서원의 의병진에 참여하여 임병찬 등과 함께 항일활동을 한 인물이다. 최제학은 최익현의 참모로 모군과 군비편성 임무를 수행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4개월간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의병운동이 좌절된 이후 대마도로 면암을 찾아가 극진히 간병하고 그가 순국하자 부산으로 운구하여 극진히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1990년 대한민국 애족장을 받았다.

최제학은 아버지가 농민군에 의해 처형당하자 마땅히 아버지의 원수인 김개남을 처형한 후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고집하여 김개남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야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이 10월 14일 남원을 출발하여 16일에 전주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이동로는 검토된 바가 없었다. 김개남이 전주로 가는 행로가 임실을 거쳐 관촌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면, 진안 성수 부근에서 하루를 묵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민군의 규모가 총을 맨자가 8천 명이며 짐을 맨 행렬이 백리에 이르렀다¹²⁰⁾는 기록에서 보듯이, 그 규모로 보면 진안 성수면 도통리 인근은 김개남군의 이동로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최제학 아버지의 처형은 10월 15일경의 일이며 그 원인은 군량의 확보 때문으로 추정된다.¹²¹⁾

또한 이용엽 선생은 진안 안천에 동학군들이 들어와 혼장을 하고 있던 이병항(李炳恒, 靜隱 1861~1946)의 서재를 불태웠다는 기록을 통하여 김개남 농민군이 진안 성수에서 안천-용담-금산으로 갔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김개남 농민군이 전주에서 금산으로 가는 이동로는 삼례, 고산을 거쳐 곱티를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많은 수의 농민군 이동이 전략적으로도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김개남 농민군의 일부가 진안 성수에서 안천 용담을 거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11월 8일 조림장터 전투에서 농민군이 백운면 황금리 옥녀봉 동쪽을 넘어 장터로 들어온 것이나 안천 정자동에서의 방화사건 등은 농민군이 금산을 거점으로 사방으로 공격을 하던 시기의 이동로일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김개남의 이동로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상황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는 진안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문헌 기록에 나타난 진안지역 인물은 1차 봉기 단계의 동학교단 관련 기록에 나오는

120) 『梧下記問』 갑오 10월조.

121) 8월 24일경 김개남은 임실에서 전라좌도 일대에서 농민군 7만여 명을 모아서 남원으로 간 기록을 보면 임실 관촌 신평 성수 일대에서 모였다고 한다(『梧下記問』 갑오 8월조). 만일, 성수가 진안 성수라면 최씨의 사건은 8월 24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최씨의 제사일 이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봉준의 경우에도 논산에서 공주로 향하는 과정에서 노성의 윤증 후손 덕에 들어가 군량 확보를 위해 문간채에 불을 질러 협박한 흔적이 남아 있다.

116) 참고로, 전봉준의 출생지인 고창 당촌마을의 경우 전씨 집성촌이라고는 하나 <측량원도> 상으로는 전체 20여 호 가운데 전 씨는 한 사람밖에 없었으나 이곳은 전씨가 다수 존재했다.

117) 「東學徒活動狀況」, 『南小四郎文書』 수집자료.

118) 앞의 이현도, 유족등록 신청서 자료.

119) 이용엽, 앞의 글.

오숙여,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과 용담 출신의 금산 집강 김기조와 전경서 등 6명, 재봉기 단계에서 관군에 의해 처형 또는 체포된 서도필·박만호·이만실·조운삼·박치팔·김윤일과 이만학·여관서·김치서·창성도·임성원·김중이·선윤석·유상원·고윤홍 등 모두 14명, 그리고 전봉준 판결문에 나오는 문제팔·전영동·이종태 등 3명을 합하면 모두 23명이다.

이 가운데 오숙여·이사명·전화삼·김택선과 용담 출신의 금산 집강 김기조, 그리고 문제팔·전영동·이종태·전경서 등 이상 9명은 진안 출신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인물 14명은 진안 출신인지조차도 불분명하다. 특히 11월 이후의 관변기록에 나오는 처형자나 체포된 인물은 여러 지역에서 온 농민군들이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특정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이사명은 후손의 구술에 따라 오정리 사람이 확실하고 같은 마을이 천안 전씨 집성촌이라는 점에서 전화삼 등도 이 마을 출신임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전 씨를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 진안 접주가 분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연고지나 후손을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진안군 차원에서 추진하여 유족으로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

3) 진안 기념사업의 과제

진안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진전과 농민군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기념시설 및 기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전투 현장에 대한 안내 표석과 안내문의 설치이다.

진안전투지와 용담전투지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이를 알리기 위한 표석과 안내문을 설치하는 일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김개남 농민군 이동로를 관광자원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민군 이동로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후 도보나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정비하고 중간, 중간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 용담댐의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재형 관광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오정마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 마을 지정이다.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다수의 지도자를 배출한 오정마을에는 갑오년 이야기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당시 지도자들의 집을 표시하고 안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들을 설득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마을로 지정하여 마을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정부 각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공모사업을 통해 특성화 마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진안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군 문화유적지로 지정해야 한다. 유적 지정 대상은 조림장터 전투지와 용담 관아터, 진안 관아터, 오정마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진안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이나 기념시설을 관련 유적지에 설치하여 기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안 동학농민혁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교육 홍보물의 제작과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진안 문화관광 지도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는 타 시도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 가능한 일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문헌자료에 나타난 진안군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사항을 1894년 봄과 가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진안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이사명, 전병화, 김택선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담은 금산 집강을 했던 김기조 외에는 뚜렷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들 진안 농민군 지도자들은 이 지역 농민들은 인솔하여 무장기포 이후 1차 봉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담에서는 참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집강소 시기에 진안과 용담지역은 각각 집강이 임명되어 폐정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금산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집강소와 보수 유생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팽팽한 긴장이 김개남의 금산 점령으로 깨지고 11월 8일 전투를 계기로 용담현은 농민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용담 관아를 비롯한 민가는 온통 불바다가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진안까지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개남 농민군이 청주를 향해 출발한 11월 10일, 일본군과 함께 금산에 들어온 관군은 11월 14일과 16일에 용담 조림장터와 진안에서 각각 농민군과의 전투를 치렀지만 관아를 수복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날 바로 고산으로 빠져나갔다. 따라서 11월 말까지는 농민들이 용담과 진안을 지배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전봉준 세력의 공주 점령과 김개남의 청주 점령이 좌절되어 황토현 전투 이후 승승장구하며 기세등등했던 농민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농민군들은 각지로 피신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무렵, 12월 1일 고산에서 소모관 전동석이 이끄는 민보군이 진안 농민군을 공격함으로써 진안 동학농민혁명은 약 40여 일간에 펼쳐진 농민 세상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 같은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기념을 위하여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의 진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정마을과 전투지에 대한 유적지 지정과 정비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발표3.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2020.6.11 세미나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



원도연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PART1 / 사업의 배경과 목적

1.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가적 차원의 의미확장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숨겨진 사건과 인물을 재조명하며 현재적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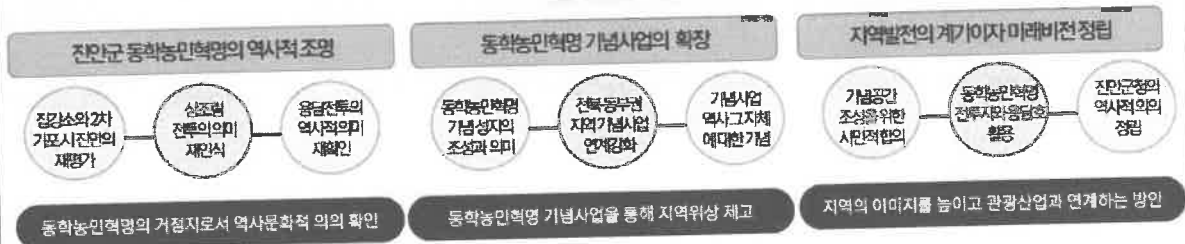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상사업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증가

동학농민혁명의 숨겨진 장소로
진안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높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확장

126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2020년 21세기 진안의 시민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또다른 거점 진안의 의미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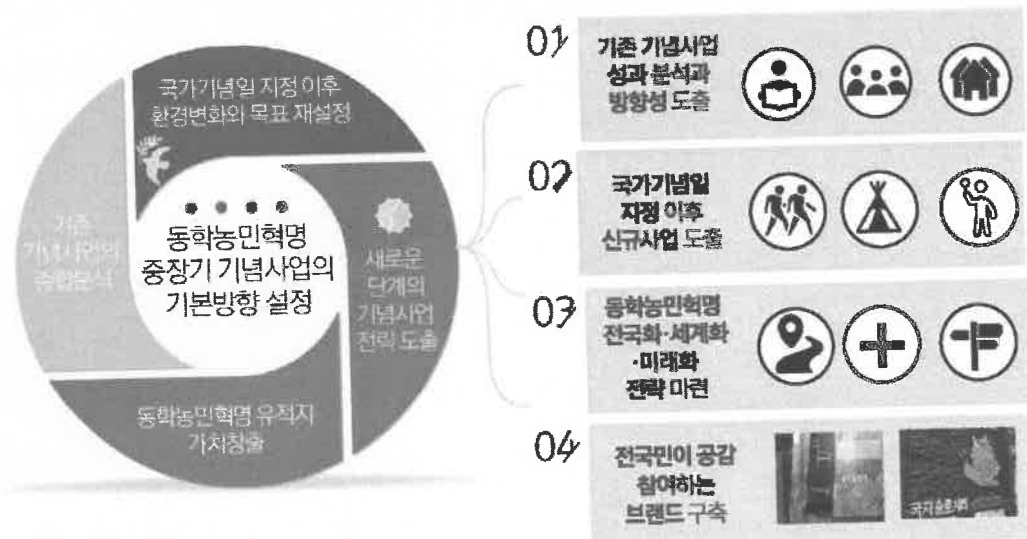


1.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새로운 단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성 도출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전세계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단계 구상



1.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출발”

동학농민혁명의 숨겨진 역사와 전투, 동학농민혁명에서 진안의 지리적·역사적 위상을 세움

역사적 사실의 확인

- ①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복원
 - 진안군의 동학농민혁명 사건과 전투, 인물의
역사의 의미 확인
 - 진안군의 지리적·역사적 특성 확인
 - 동학농민혁명 전후의 지역사 복원

- ② 진안군 상조림전투 역사적 복원
- ③ 용담현의 동학농민혁명사 복원
- ④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인물 발굴



진안군 정전면 연민리길 행사

진안군에 특화된 기념사업

- ⑤ 진안 상조림 전투지 기념공원 조성
- ⑥ 용담향교 유적지 기념공간 조성
- ⑦ 진안군청 동학농민혁명 표지석



진안군 용담향교 수물지 현장

지역사의 복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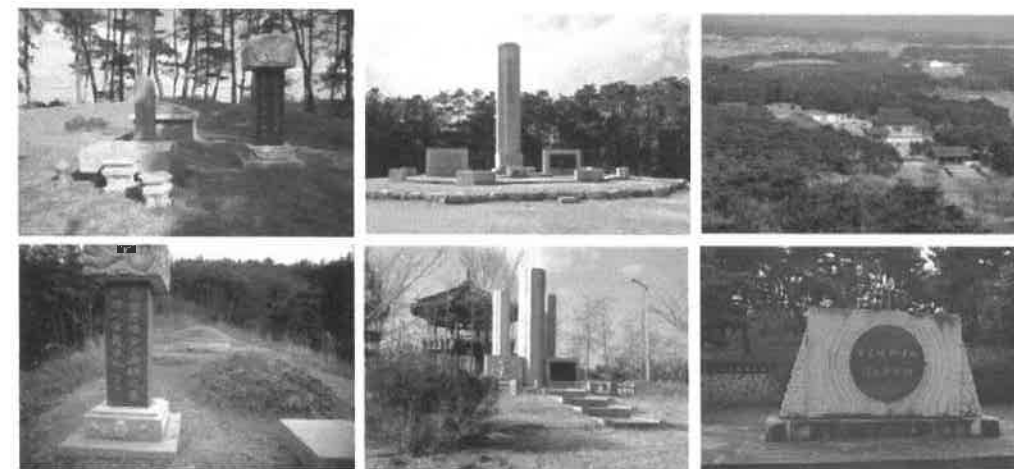
- ⑧ 상조림 전투지 기념사업 추진
- ⑨ 용담향교터 관광명소화 사업
- ⑩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인물조명사업



1.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이 기문을 통한 소극적 기념사업에서 국가적 기념으로



- ✓ 황토재 기념탑과 황토현 기념관 그리고 2004년 새롭게 개관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국가가 주도한 기념사업의 대표적 공간
- ✓ 국가가 주도한 이러한 기념사업이 갖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기념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지 않거나 때로는
반한다는 점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경과

0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기념사업들



- ✓ 황토재 기념탑과 황토현 기념관 그리고 2004년 새롭게 개관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국가가 주도한 기념사업의 대표적 공간
- ✓ 국가가 주도한 이러한 기념사업이 갖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기념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지 않거나 때로는 반한다는 점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경과

0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기념사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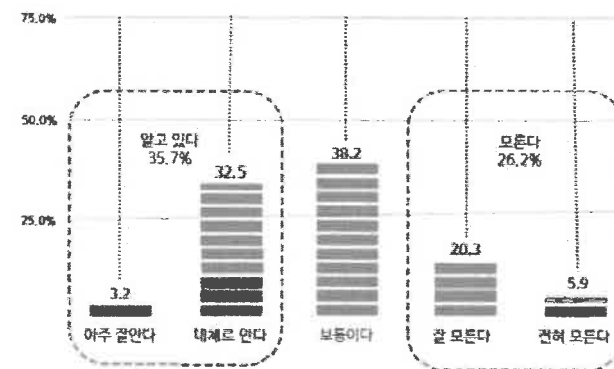


- ✓ 고창 전봉준 생가나 무장기포지의 문제점에 비해 고부면 신중리에 세워진 무명농민군위령탑(1994)과 최경산 장군 묘역(1996), 삼례봉기역사광장 등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지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힘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경과

03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조사개요 - 조사기간은 2019.10.8~14일로 일주일간 1,038명이 응답. 조사기관은 인터넷 패널조사 전문기관인 '패널나우'임.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 3.04 .



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동학농민혁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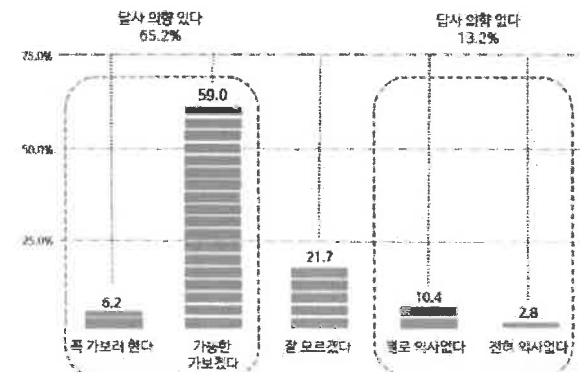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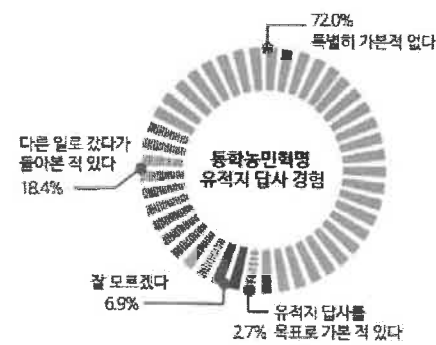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지도는 35.7%로 나타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모른다는 응답도 26.2%로 나타남
- 여성(28.4%)보다는 남성(42.7%)이 인지도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지역별으로는 서울(43.2%)과 호남(40.4%)이 인지도가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10% 내외만 인지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경과

03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의향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의향

- ✓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답사경험은 72.0%가 특별히 가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유적지 답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가본 응답자는 2.7%에 그침
- ✓ 향후 답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5.2%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기념사설은 전국적으로 353개소인 2018.4.24. 서울 종로구 종각역 종로네거리에 세워진
전봉준 동상은 가장 최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으로 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53개의 유적지가 세워져 있음

지역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계	지역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	계
유적수	2	3	3	1	3	13		유적수	21	18	11	2	6	3	2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53	지역	함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156
유적수	23	40	156	79	27	3		유적수	7	2	5	16	61	2		

- ✓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57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음. 전북의 전체 유적지 중에서는 정읍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고창군 21개, 김제시 8개, 전주시 16개의 순서로 나옴
- ✓ 전북지역의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기념사업의 열의를 잘 나타내고 있으나,
타 지역의 기념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줌

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인물유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활동유적, 전투유적이 있음. 기념사설은 36개로 동학농민혁명 지체를
기념하는 공원, 기념비, 기념탑, 기념관 등을 이 범주에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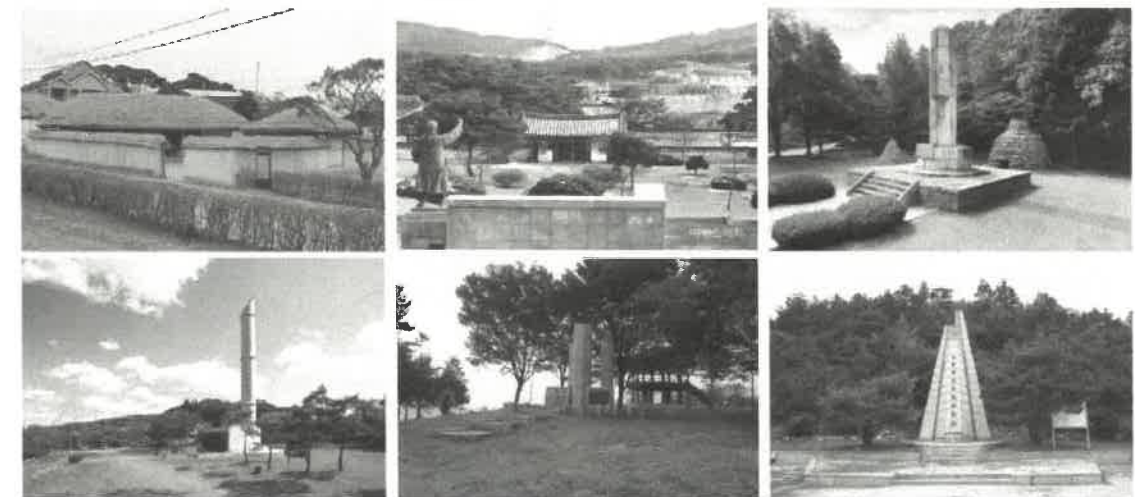
구분	유적수	주요 유적의 내용
인물유적	83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덕령, 최경선, 최사형, 손병희 등 동학농민군 주요 인물들과 관련된 유적 주요 인물들의 생가터, 고택, 파제지, 처형지, 묘역, 추모비, 공적비, 동상, 기념비 등
동학유적	8	천도교 관련 유적(최제우, 최사형 등은 인물유적으로 구분)
전투유적	52	동학농민군 전투지 및 전적지, 전투지를 기념한 비석 등
활동유적	132	동학농민군 기포지, 집회(대회)지, 진격로, 주둔지, 집결지, 정령지, 대도시터, 농민군 집단처형지, 주요대회 기념비 등
(관련유적)	42	권아터, 읍성 등 농민군과 직간접 관련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
기념사설	36	기념공원, 기념비, 기념탑, 기념관 등
계	353	

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안내판, 안내문, 표지석 등은 제각각이며 소재나 형태 등은 고사하고 표기방식이나 명칭에서도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 디자인, 표기방식, 사체 등 미화적인 고려가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

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 ✓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시도지정문화재 10개, 시도향토문화유적 3개, 등록문화재 1개 등으로 구성

PART2 / 역사적 사건의 기념사업

3. 동학농민혁명 국내외 선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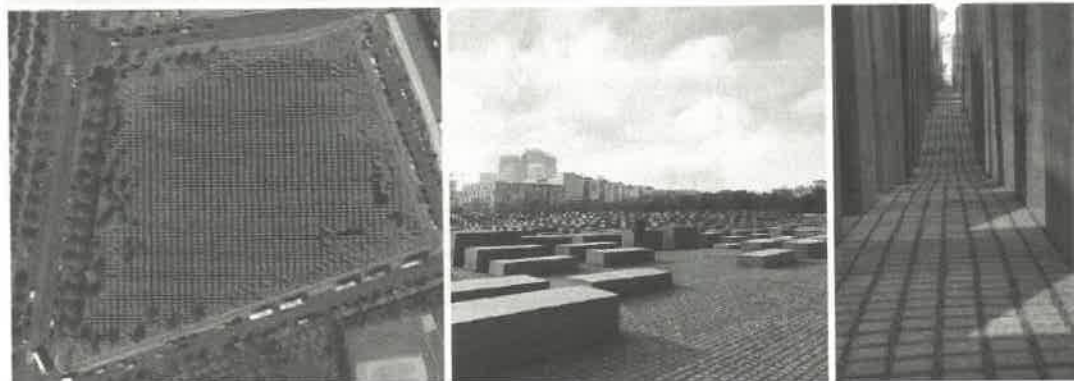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16

01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홀로코스트

▶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공원 -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기억하게 함

- ✓ 다나예 라베스킨트가 설계한 유대인 박물관과 기념정원은 과거에 대한 독일인들의 속죄의 뜻을 담은 대표적인 장소로 참원 이 박물관은 독일의 유대인들이 떠안아야 했던 침묵한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함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워줌



3. 동학농민혁명 국내외 선진사례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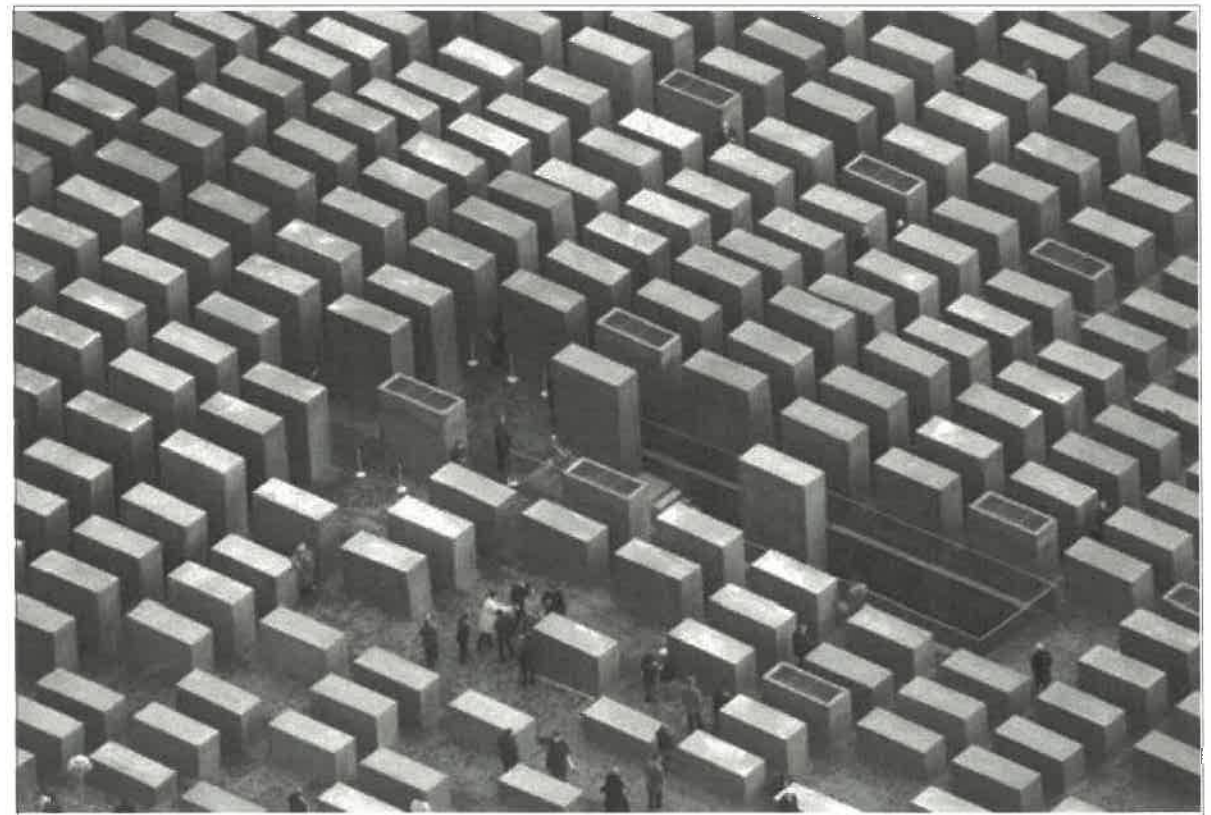
01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홀로코스트

▶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 이야기 형식의 메모리얼 박물관

- ✓ 상설전시관은 박물관, 사진, 영화, 목격자의 증언 등을 중심으로 4층에서 2층까지 307평의 공간에 학살을 주제로 한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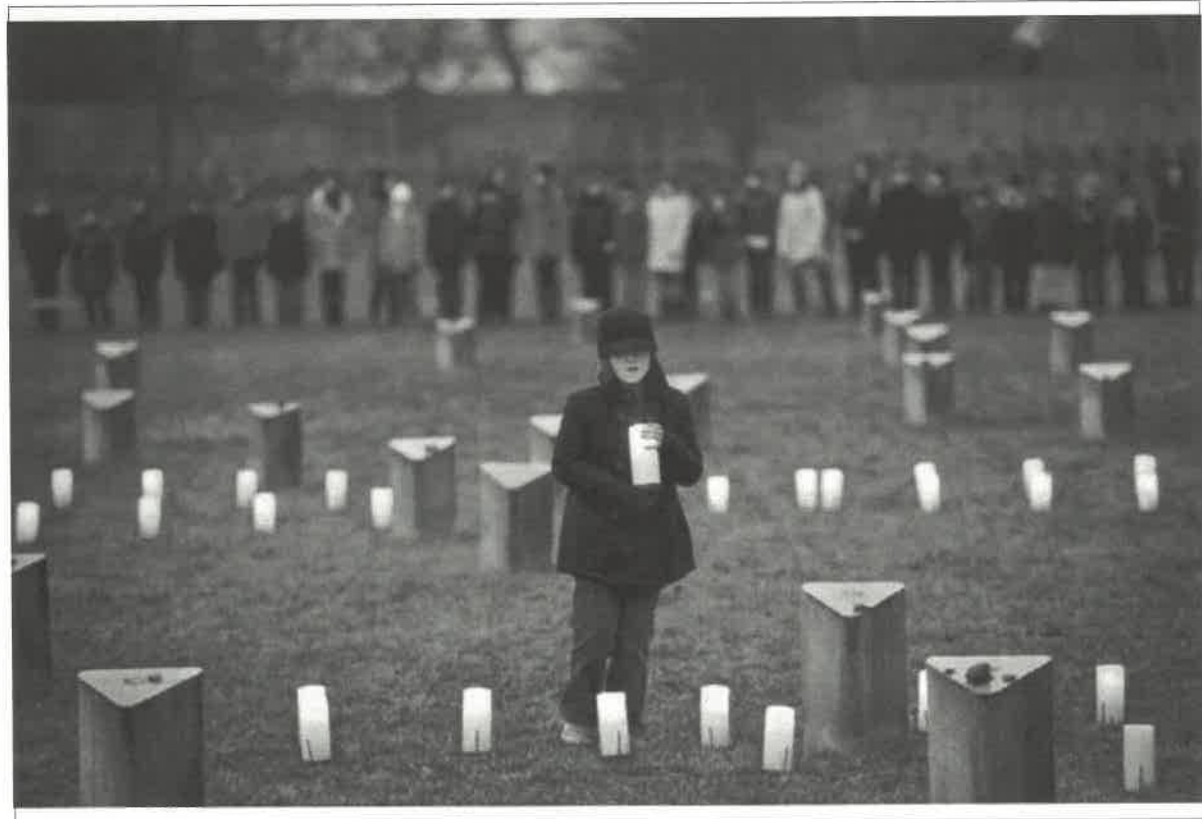
*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경(왼쪽), 홀로코스트 인권교육(오른쪽). 가운데 그림은 박물관 내 '얼굴들의 탑' 전시관. 9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 동부 에이샤크라는 유대인 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3층 높이로 전시돼 있다. 1941년 들어닥친 나치군은 사진의 주인공인 주민들을 이틀 만에 몰살



01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부러진 모습으로 나치의 대학살에 희생된 유대인의 비극을 상징.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홀로코스트 타워(유대인의 얼굴을 상징하며 만든 조형물), 광명역 정원(49개의 콘과 그 기둥 위에는 화망의 올리브를 심음)



01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한국전쟁기념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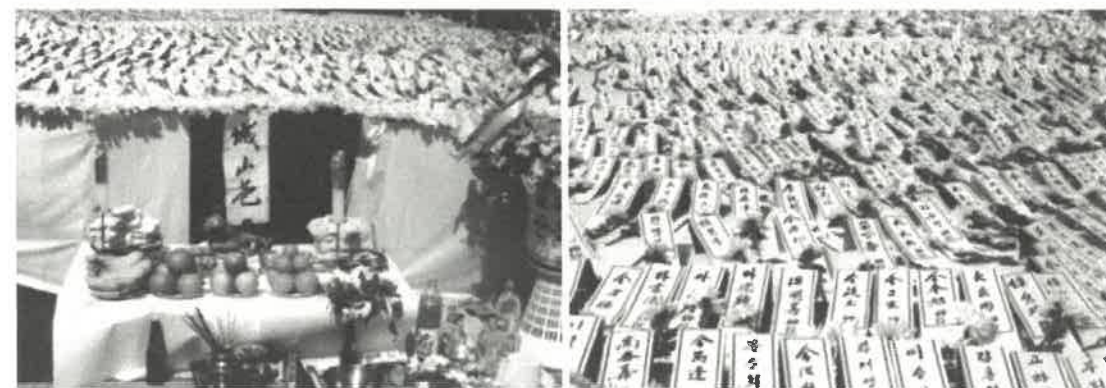
▶ 가장 비참한 순간, 이 전쟁에서 죽어간 희생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함

3. 동학농민혁명 국내외 선진사례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제주 4.3 사건

▶ 43 폭동으로 왜곡된 역사, 그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함

✓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9년 4월 3일 제1회 4·3 추모제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함. 제주 43 위령제에서는 희생자를 위한 제단을 차리고,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모셔 도청앞 과장에 제단을 쌓고 위령제를 지냈음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제주 4.3 사건



▶ 제주 43 평화공원

- ✓ 4.3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조성됨
- ✓ 희생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원한과 분노를 해원하는 묘역을 정비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제주 4.3 사건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제주 4.3 사건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 제주 4.3 사건



▶ 제주 4.3 사건 안내판

나름대로 일관된 최소한의 규칙과
디자인 구성을 갖추고 있음
동백꽃을 상징으로 하는 체계

▶ 제주 4.3과 동백꽃

제주 4.3 사건을 추모하는 기간에
기념사업회는 제주 4.3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을 열기도 하며,
동백꽃이 그려진 다양한 상징물과
기념물 있음

제 4.3 사건 기념 일대
#4월엔
동백꽃을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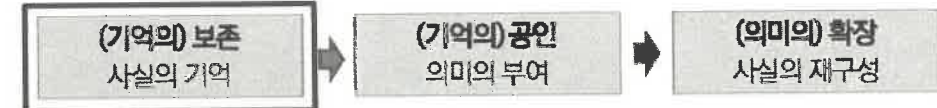
02 국내외 역사적 사건 기념사례 제주 4.3 사건



PART3 / 진안군 기념사업의 방향

이 진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1차 과제

✓ 진안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복원하고, 그 시대에서 진안군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평가하는 맥락적 사실인식이 첫번째 단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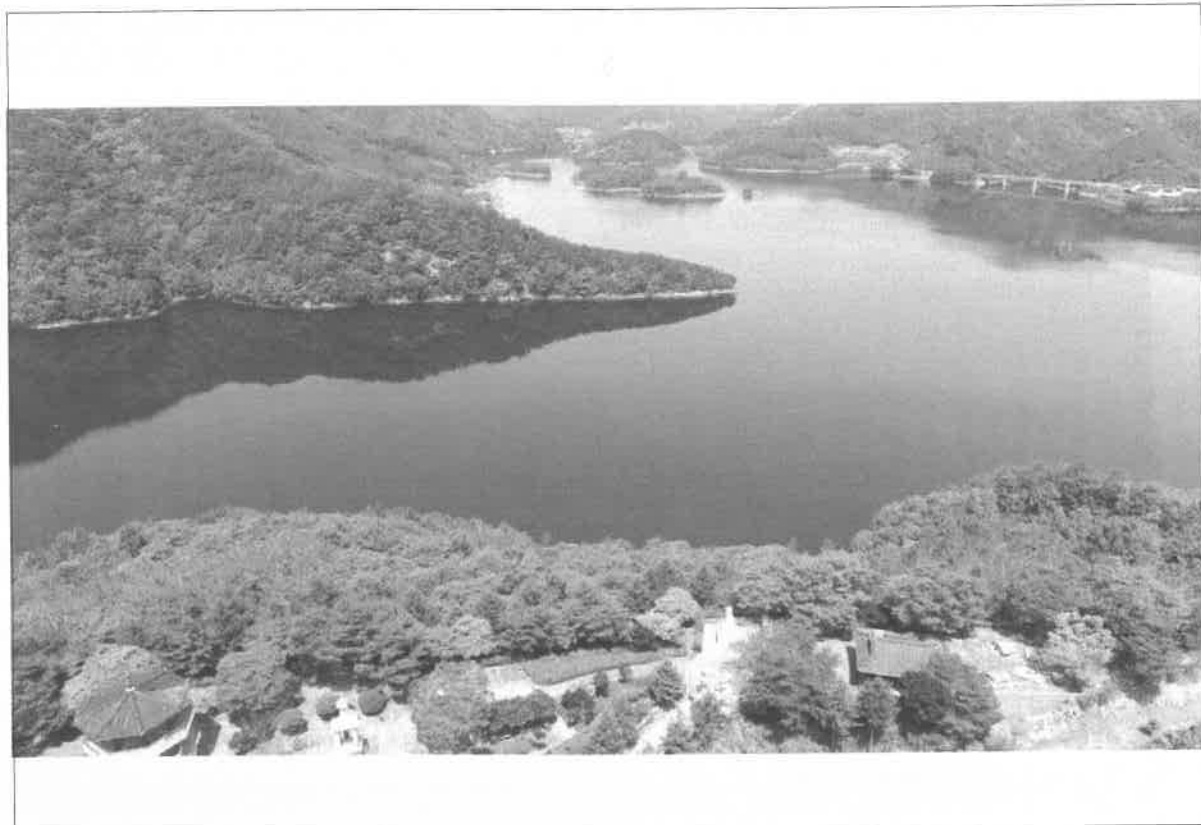


- ✓ 기억의 보존이라는 단계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데 온 힘을 쏟는 시기임.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을 남기고 인물을 기리는 사업들이 사실의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짐
- ✓ 다음 단계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공인되면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 주체들에 의해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기억의 공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 진안군의 경우 그동안 기념사업의 전 단계인 기억의 보존(사실의 확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진안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1894년 전후 진안군의 상황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사건들을 재현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임
- ✓ 그러나 진안군은 그동안 나름대로 학술활동을 통해 진안군의 동학농민혁명을 밝혀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확인된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념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 진안 상조림 전투지의 기념공원 조성

✓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첫번째 과제는 상조림 전투를 극적상황을 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간조성





4.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설정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32

02 진안 용담향교 수몰지 현장의 기념공간 조성

✓ 진안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사건이었던 용담향교의 현장을 기념하는 방법



- ✓ 현재 용담향교는 수몰되어 현장이 보존되지 못한 상태임. 용담향교는 본 건물을 그대로 철거하여 이전 설치하였으나, 용담향교의 현장이 주는 아우라는 찾을 수 없음
- ✓ 용담향교는 향교 뿐만 아니라 용담향교를 둘러싼 지형과 인물의 총체적인 공간이므로, 이곳의 현장을 최대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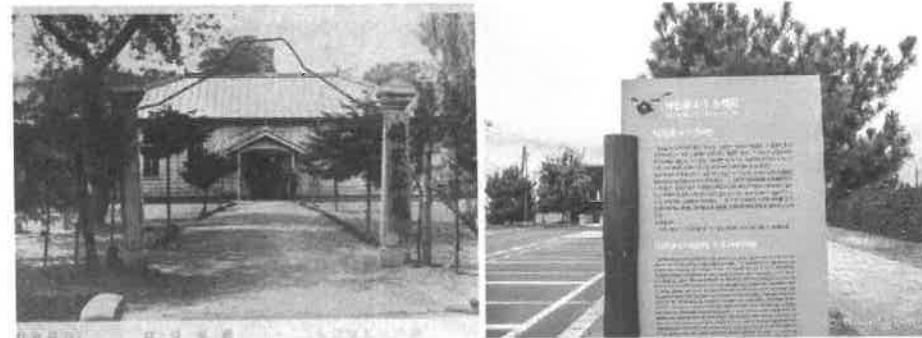
4.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설정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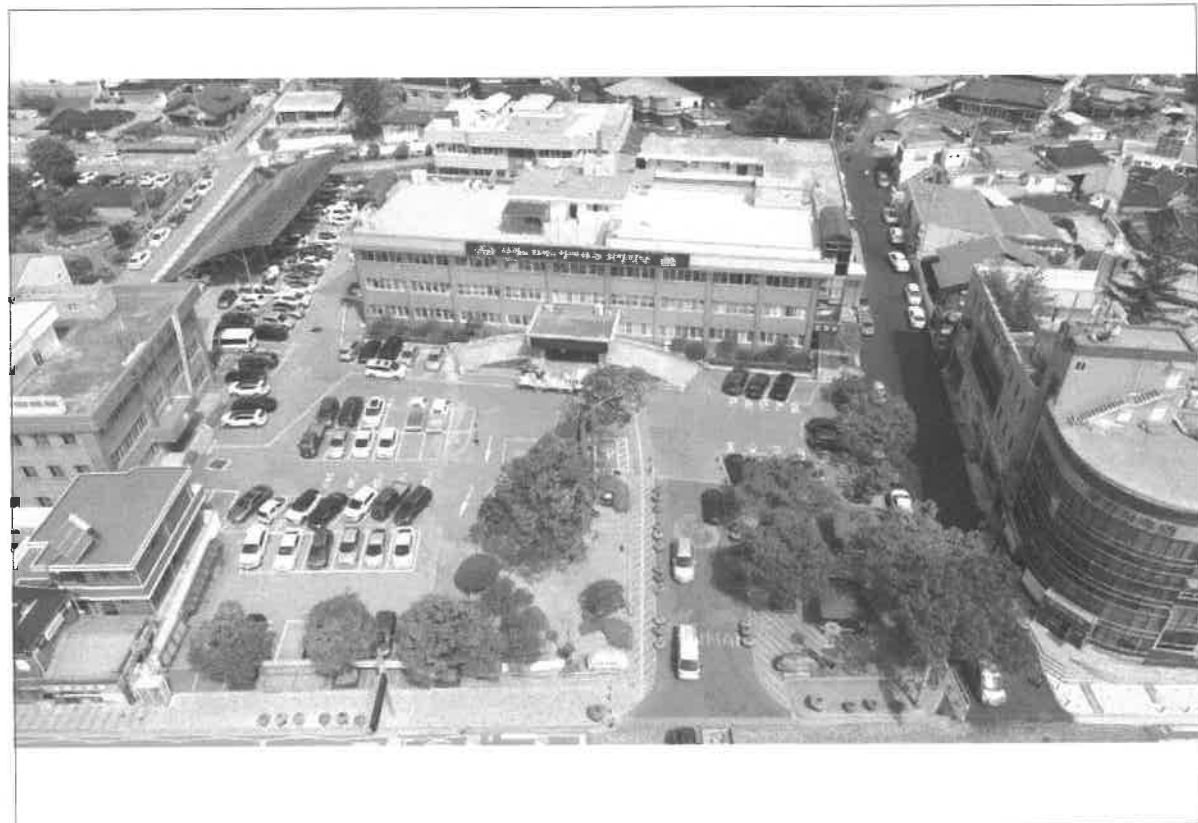
33

03 진안군청의 상징적 기념

✓ 진안군청은 동학농민혁명과 그 전후의 역사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음



- ✓ 진안군청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표식 필요. 진안군청이 유서깊은 역사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와 공간을 기념하는 표식이나 기념물은 전혀 없음
- ✓ 진안군청 내 느티나무 아래 진안군의 역사와 주요 사건을 담은 간단한 표식으로 진안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함. 표지판과 함께 장기적으로 이 공간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필요





감사합니다

주제발표4.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과 기념시설 조성방향

이인숙 디자인 물 실장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시설물 디자인제안서 2020.05

시안 1

~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군과 일본군 최후의 전투이며 동학군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리는 상조림전투의 모습을 조형화한 디자인
~ 당시 가들길이었을 때인 들판과 외세에 맞서 싸우던 농민과 일본군의 모습을 나공과 레이저커팅 기법으로 표현



시안 1-1

-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군과 일본군 최초의 전투이며 동학군의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리키는 삼조림전투의 모습을 조형화한 디자인
- 당시 가을철이었던 들마와 외세에 맞서 싸우던 농민과 일본군의 모습을 다공과 레이저키팅 기법으로 표현



3

시안 2

- 전라도 지역의 최초 외세와 싸운 전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을 조형화한 디자인
- 진안 마이산의 기암으로 외세에 저항하는 동학군의 모습과 이름을 새겨 진안군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들에게는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 디자인



4

시안 1 시뮬레이션

- 위치: 진안군 정천면 봉화로 66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앞)



5

시안 2 시뮬레이션

- 위치: 진안군 정천면 봉화로 66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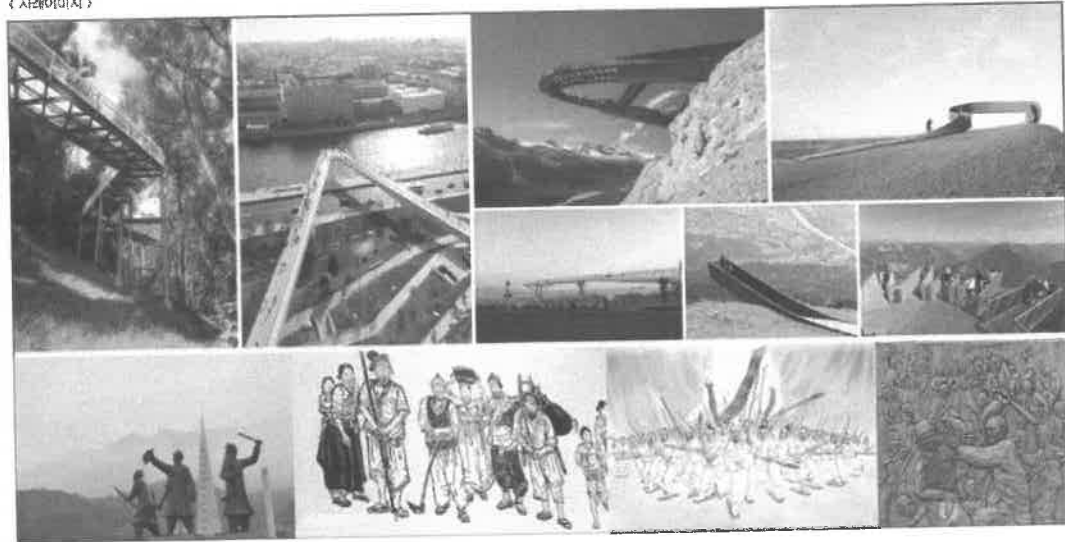


6

용담댐 스카이워크

- 용담지역은 금산과 더불어 동학농민이 한양으로 접근할 때 작전상 중요한 지역으로 관군과의 싸움도 치열하였다
- 용담전투의 결과 일본군이 진안지역으로 진입하여 목세와 동학농민의 첫 싸움이 되었다
- 현재는 용담전투의 터가 용담댐건설로 수몰되었으나 스카이워크 설치로 용담댐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와 동학농민의 기상을 알리고자 한다

〈사래이미지〉



7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추모물 디자인제안서

용담댐 스카이워크 시안 1



8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추모물 디자인제안서

용담댐 스카이워크 시안 2



9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추모물 디자인제안서

용담댐 스카이워크 시안 3



10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실태와 기념사업을 위한

진안군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일 시 2020.06.11.(목)

장 소 진안군 산약초전시관 2층 홍삼실

주 최 진안군

주 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일 2020년 6월 11일

© 본 책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발행처의 허가 없이 부분 또는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진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실태와 기념사업을 위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